

星武



제34호 | 2007. 1.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반갑습니다”

길을 나서면 자꾸 자꾸 떠올라요,
처음 만난 그날처럼... 볼 때마다 반가운 이름,
GS칼텍스를 만나면 마음이 먼저 반갑다고 인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항상 나를 먼저 챙겨주는 아내...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도 무거워집니다.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우리 가족,
언제나 행복하게 지켜줘야 할텐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생활을 지키는 보험



사고와 질병,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미라이프 가 당신의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통합형	(무)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	상해	(무)프로미라이프 노블보장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베스트상해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보험0605	저축	(무)프로미라이프 골드라이프보험0603 (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브라보운전자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브라보상해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골드클래스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가족건강보험0610
운전자	(무)프로미라이프 드림케어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이지스건강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뷰티케어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건강OK의료보험0611	단체	(무)프로미라이프 비즈안심종합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행복가득우리집보험0604	방카슈랑스	(무)프로미라이프 베스트저년사랑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셀스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드림케어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이지스건강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뷰티케어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건강OK의료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행복가득우리집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베스트저년사랑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셀스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0604
질병	(무)프로미라이프 드림케어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이지스건강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뷰티케어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건강OK의료보험0611	재물	(무)프로미라이프 비즈안심종합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행복가득우리집보험0604	홈쇼핑/TM	(무)프로미라이프 베스트저년사랑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셀스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드림케어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이지스건강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뷰티케어보험0604 (무)프로미라이프 건강OK의료보험0611		연금저축손해보험 미래로보험0611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0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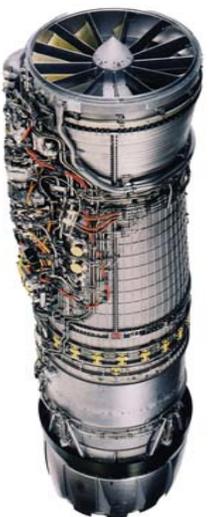


고객콜센터 1588-0100

동부화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공수료를 지해하고 계약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특별이익 제공 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미라이프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에서 질병까지, 당신의 생활에 든든한 힘이 되는 동부화재 생활보험입니다.

Now at a
theater near you



F110 engine
power for the F-15K



imagination at work

星武

Contents



표지 : 성무탑과 F-15K



성무제 중 탈춤 공연



총동창회 회장단 작전사령부 방문

연 하 장 신 년 사 공군소식 모교소식

총동창회 소식

- 14 부대방문
- 15 후배 기수 임원들과의 대담
- 16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 모임
- 17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성명
- 18 친선 바둑대회

기획특집 I 전·평시 작전회고

- 19 6·25전 : 적지 상공에서... 김영환
- 23 걸 프 전 : 사막 폭풍작전 유보형
- 27 비정규전 : 대간첩 작전 수기 최희영

기획특집 II 훈련 경험/교훈

- 37 연합(1) : “NO.1... 쓸까요?” 이성은
- 41 연합(2) : 공중현장 지휘... 강성권
- 44 합동 : 야간 공해합동훈련의 교훈 이종대
- 48 공중전투 : 전투기동능력 배양... 신재철
- 54 비행교육 : 비행훈련을 맡으면서 김길상
- 58 항공포 : 준비에 성공하는... 이영권

회원논단

- 61 한국 공군력 발전을 위한 제언 최명상
- 67 위기의 고구려사 이건일

	회원기고	
『공군 핵심가치』 선정 및 구현	심우섭	74
자유로이 하늘을 날았으므로	임종춘	79
사랑방 골프 이야기	정병호	80
희망, 삶과 행복의 위대한 힘	강동우	88
‘신패작’ 씨의 웃음	김국창	93
내 인생의 하프 타임	원형건	97



총동창회 이사회

	각 기생/지회 동정	
	1~20기생 동정	100
	지회 동정(대한항공, 미주)	106

	총동창회 알림	
	총동창회 이사회	109
	평생회비 적립현황	111
	제14차년도 찬조금 현황	116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117
	전역자 현황	120
	알립니다!(결혼, 부음)	121
	주소변경	122
	기수별 동기생 임원	124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126
	편집후기/기고안내	127



3사 총동창회 친선 모임



친선 바둑대회 단체전 모습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원 일동 드림

신년사

총동창회장 이억수
(14기 사관)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07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동창회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에서, 군에서 묵묵히 자기 책무를 다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공사 총동창회 발전을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공사 총동창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 노력하였으며, 국가 안보의 전문적인 집단으로서 우리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론 결집을 위한 제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공사 총동창회는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로서의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 동문간의 애경사는 물론 동문들의 취업이나 구직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완하여 회원 간에 상부상조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쉬운 것부터 찾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丁亥)년 새해에도 동창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 1. 1.

「2006 항공우주법 국제세미나」 개최



공군은 9월 7일 김성곤 국화국방위원장,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2006 항공우주법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항우연과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협력

공군전투발전단은 7월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과 관련한 협력함 의서를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4차에 걸친 우주인 선발과정에서 공군만이 가진 원천기술의 진면목은 항공우주의료원의 저압실 체험, 가속도 내성체험에서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공군 역사 상징인물 선정

공본 문화홍보과는 7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군을 대표하는 「공군역사상징인물」로 최용덕, 김영환, 이근석 장군을 선정하였다. 독립운동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공군 준립의 철학과 사상을 기초한 덕장 최용덕 장군, 빨간 마후라의 표상으로서 한국전쟁 중 세계적인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보호한 김영환 장군, 최고의 기량을 갖춘 조종사로서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장렬히 산화한 감투정신의 표상 이근석 장군을 통해 과거 공군인이 가졌던 기상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58단 이라크 파병 두 돌 맞아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평화 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 제58항공수송단이 10월 12일, 파병 두 돌을 맞았다.



제6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11월 7일 학계 교수들과 각군 사관학교 인성교육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인성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6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2001년 시작되어 6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사관생도의 공군 핵심가치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이라는 대주제 아래 공군인이 지녀야 할 도전정신, 팀워크를 위한 리더십과 팔로워십,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전문성, 군인의 삶과 헌신의 4개 소주제를 선정, 군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이명현 교수의 기조연설



각군 사관생도들의 제4 주제 발표

제5회 대학생 안보토론회 참가

성균관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대학생 안보토론회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안보토론회에는 사관생도와 전국 41개 대학생



성균관대 정재영 부총장 기조연설

등 180여 명이 참가해 국방개혁 2020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 통일을 위한 국제 국내적인 환경, 북한 핵문제의 향후 전망과 대책 등 6개 주제를 두고 분과별로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공군사관학교는 각 분과별로 1명씩, 총 6명의 생도가 발표자로 참가하여 최해연 생도(3학년)가 최우수상을, 정세진 생도(4학년), 엄태훈 생도(4학년), 전병욱 생도(4학년)가 우수 발표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공사생도, 해외항법 및 하계군사 훈련

4학년 생도 80여 명은 10월 23일 청주 비행단에서 2대의 공군 수송기를 타고 해외항법훈련 목적지인 괌과 사이판 방문을 마치고 10월 27일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훈련 중 생도들은 C-130 수송기 조종석에 동승하여 항법장비 사용법과 영공통과절차 등 현장 비행상황을 체험한 것은 물론, 괌 앤더슨 공군기지 및 태평양전쟁 기념관 등 미군 군사시설과 전쟁 유적지를 방문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평화수호의지를 다졌다.



C-130 수송기를 배경으로 한 기념촬영



조종석에 동승한 생도들

1, 2, 3학년 생도들은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실무능력 및 강인한 정신력, 체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의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낙하산 강하훈련, 수중생환, 산악장애물 극복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21세기 항공 우주군을 이끌어갈 예비 공군장교로서의 기본자질과 능력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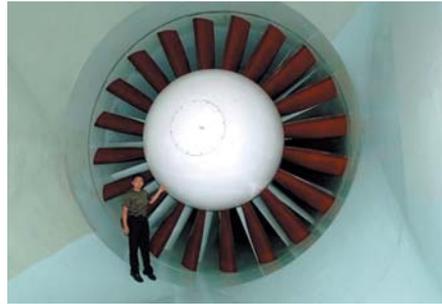
좌측부터 1학년 생도 패러글라이딩 훈련,
2학년 생도 장애물 극복훈련,
3학년 생도 낙하산 강하훈련

공사 풍동실험실, 과학기술 우수성 군내외 입증

세계 최대 규모의 송풍기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풍동실험실은 송수신용 안테나가 0.6도만 기울거나 쳐져도 6,000km 상공에 떠 있는 무궁화 5호와 통신이 두절되기 때문에 강풍과 악천후 검증 실험을 하였다. 국내 유일하게 실제 풍속 풍압과 똑같은 상황에서 실험할 수 있는 공사 풍동실험실에서 2004,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구조와 설계를 보강했다.



위성통신 안테나



풍동실험실

한국 최초 여비행사 권기옥 여사 사진 헌정식 거행

공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고 권기옥(1901~1988) 여사의 사진 2점을 <한국비행역사 연구회>로부터 기증받는 사진 헌정식을 거행했다.

권 여사는 1932년 상해 전쟁에서 전투기를 조종하고 일본군에 기총소사를 퍼붓는 등 전과를 올린바 있다. 1943년 조국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와 조국 탈환 작전을 준비했으며, 그녀의 꿈인 조선총독부 폭파를 위해 비행기를 조종했다. 광복 후에는 조국으로 돌아와 국회 국방전문위원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다.



가을축제 ‘성무제’ 성황리에 종료

- 건전한 생도문화를 발전시키고 연간 소양교육 결산을 위해 개최
- 자매결연 청원 남일, 제주 대정초등학생 초청 성무제 함께 즐겨



성무제는 작품 개관식을 시작으로 하여 생도들이 파트너와 함께하는 '보라매 향연'으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건전한 생도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공사생도들의 가을축제인 '2006 성무제'가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서양화, 공예, 원예 등의 전시회와 연극제, 음악제, 탈춤공연, 그룹사운드 등의 공연 활동을 성황리에 마치고 종료되었다.



탈춤 공연



초청된 두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념촬영

특히, 금년도 성무제에는 자매결연 초등학교인 청원 남일 및 제주 대정초등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축제를 함께 즐기는 뜻깊은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부대방문



총동창회 회장단은 운영 업무인수 후 2006년 7월 13일에 모교를 예방하여 공군사관학교 발전 기금 조성, 홈 커밍 데이(Home coming day) 행사 진행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든든한 후배들의 생활 모습을 참관하였다.

이어 7월 20일에는 공군본부를 예방하여 공군의 당면과제를 청취하고, 총동창회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익일 7월 21일에는 작전사령부를 방문, 영공 방위현장의 작전현황 청취, 역사기념관 관람 등으로 발전하는 공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후배 기수 임원들과의 대담

제14차 운영기수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총동창회 참석 활성화 유도활동의 일환으로 8월 29일에는 현역 후배 기수 임원들과의 대담을 공군본부에서 가졌다.

각 기생 대표 총 19명이 참석하여 오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총동창회 소식, 협조사항을 전하고 후배들의 소식도 들었다.

총동창회에서 처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아울러 성무지에의 기고, 동창회비의 납부를 당부하고 향후 성무지의 부대 직배를 알렸다.



총동창회 임원진은 대한항공 조종사 동문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8월 21일 해미에서 운동을 같이하면서 격려하고, 총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모임은 민항조종사들의 총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 모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 모임을 8월 28일 한성대 골프장에서 가졌다. 육군 6명, 해군 4명, 공군 6명의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또한 안보에 대한 정서가 서로 통하는 등 교감과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모임을 지속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성명



2006년 8월 23일 향군회관에서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및 육·해군장교 총동창회 성명서 발표 시 기별임원 및 총동창회 임원들이 동참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반대하였다.

주요내용은

-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 방위작전 체제 대신 공동방위 체제로서 한미군사 협조본부 를 2010년까지 만들어 군사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구상은 한미연합 방위 체제의 즉각 해체를 가져옴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말 것이다.
-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한미연합사가 유지되고 유사시 미군의 즉각, 전면적 개입이 보장될 수 있으며 전시 작통권 문제는 오직 전시에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자주와는 무관한 것이다.
- ‘힘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에 불과하고, 이 나라 안보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치려 하는 발상임으로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친선 바둑대회

공사 총동창회 주최 친선 바둑대회를 2006년 11월 22일(수)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기우회 고문인 윤자중 전 총장의 임석하에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바둑을 즐기면서 친목도 다졌다.



이번에는 예년의 개인전 바둑은 물론 화합과 팀워크(Teamwork)가 요구되는 단체전이 추가되고, 게임 방식도 다승개념에서 토너먼트로 바뀌어 어느 대국에서도 지면 탈락되어 긴장감이 높아졌으며 일찍 탈락한 회원들은 다면기 개인지도를 받아서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금년에도 공사 총동창 기우회 지도사범인 한국기원 프로기사 김수장 9단의 지도기로 대회 분위기가 고양되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개인전에서는 A조 김종남(5기), B조 신동열(14기), 단체전에서는 A조 김상곤(5기)/박찬욱(7기), B조 김성규(8기)/서철수(9기) 회원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하여 시상품과 참가 상품을 후원한 20기 사관 김삼교 동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의 반대편, 그 반대편까지 세계 속에 행복을 짓습니다

아메리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럽에 기쁨을, 아프리카에 미래를,
중동에 미소를, 아시아에 희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플랜트에서 토목, 건축, 주택에 이르기까지
SK건설의 첨단 건설 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행복하게 합니다.


SK 건설

6·25전

적지 상공에서 일어난 나의 갈등



1기 사관 김영환

한국전쟁 중에 사관생도 생활을 했던 우리들 공사 1기생 조종사들은 졸업 후 불과 4개월만인 1951년 12월 11일 강릉기지에서 첫 출격을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들은 L-4/5 40여 시간, T-6 80여 시간, F-51 50여 시간 등 약 170여 시간의 비행 경력으로 바로 전투 출격에 임하게 되었다.

나도 여기에 합류하여 56회의 전투출격을 수행하였는데 그중에서 1952년 2월초 20여 회째 전투출격 시에 적지 목표 상공에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했던 일이 있었다.

이 상황은 나에게 많은 갈등과 혼란을 느끼게 했고 제한된 시간에서 명쾌한 판단과 결심이 요구되었던 사건이었다.

당시 야기된 나의 갈등을 기술하여 장차 후배들에게 그러한 유사 상황 발생시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귀중한 지면에 기고하고자 한다.

1. 전개되는 상황 개요

1952년 2월 00일 오전 6시에 아침 브리핑이 평소와 같이 전대 작전상황실에서 있었다. 그 당시는 현재의 강원도 고성 의 통일전망대 북방 한계선 근처인 351고지의 탈환전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일진일퇴하는 상황이었으며 우리 공군은 351고지 주변 적진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출격이 증가 일로에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지 공격에 대비하여 그 지역 적진지의 대공포 세력도 점차로 강화되어 적의 고사포, 자동화기 및 소화기의 수가 대폭 증가되었었다.

따라서 출격, 성과, 안전귀환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서 브리핑 시 전대장의 지시가 다음과 같이 하달되었다.

“351고지 주변 지상군 근접지원 공격은 단 1회의 패스로 끝내고 폭탄투하 즉시 동해쪽으로 이탈할 것”

그 날 내가 소속된 편대의 출격시간은 11:00, 목표는 351고지 주변 월미산의 포진 지 좌표가 제시되었으며 편조는 1번기 편대장 조항식 중위(F-CLASS 조간 1기), 2번기 김낙규 중위(G-CLASS 공사 1기), 3번기 분대장 김직한 중위(F-CLASS 조간 1기), 4번기 김영환 중위(G-CLASS 공사 1기)로 되어 있었다.

출격 한 시간 전에 편대 출격 브리핑을 마치고, 500lbs×2, CAL50×6문으로 무장을 한 4기 편대가 강릉기지를 이륙하였다.

목표 상공 먼 지점에서 선회하며 목표 확인 후 공격에 들어갔던 것이다.

1번기 편대장기 강하진입, 폭탄투하, 이어서 2번기 폭탄투하, 연이어 3번기 분대장기가 진입하였으며 본인도 3번기를 따라서 진입, 폭탄을 투하하고 동해 쪽으로 이탈하면서 3번기 분대장기 위치를 확인하였다. 3번기는 동해쪽으로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차 고도를 취하며 전 목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분대장기는 4번기인 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인지 무전으로 “3번기는 전번 패스에 폭탄을 투하 못해서 다시 목표로 재차 진입 공격을 하겠으니 4번기는 동해쪽으로 먼저 이탈하세요”(3번기 분대장 김직한 중위는 우리 공사 1기보다 계급은 후임이었으나, 비행교육 및 출격시기가 빨랐음) 라고 알려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아침 브리핑에서 전대장 지시로 패스는 한번이고 공격 후는 동해로 즉시 이탈토록 되어 있었음으로 나의 답변은 “뭐라구요? 다시 들어가요? 혼자서!” 매우 급한 어조로 말하였으나 “걱정 말고 먼저 빠지세요” 나는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 전대장 지시 위반

둘째 : 재차 패스는 적 대공화기의 밥이 된다.

셋째 : 분대장이 혼자 들어가서 피탄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곤란한데.

넷째 : 4번기는 분대장기를 엄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섯째 : 그렇다고 3번기 엄호하려 쫓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규정위반 혹은 내가 격추되면).

여섯 번째 : 3번기 분대장기에게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여야 될까?(말이 입에서 나올 시간이 없었음)

등등 짧은 시간이어서 더 길게 생각할 여유도 없어서 단지 따라갈 것인가, 나 혼자 돌아갈 것인가를 아마도 2~3초였지만 생각하다가 드디어 다음과 같이 결심하였다.

“따라가자! 그리고 엄호하자. 그렇다면 죽어야 하겠는가, 죽으면 그만이지, 분대장기 혼자 보내서 그 사람 죽으면 내 꼴은 무엇이 될까? 더구나 계급적으로 연령적으로 아랫사람이나 용맹스럽게 못 투하한 폭탄을(후에

들은 바는 조준이 잘 되지 않아서 투하하지 않고 재패스하여 투하키로 하였다고 함) 목표에 투하하여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성을 받들어 쫓아가서 엄호하는 것이다.”

그 당시 나의 판단으로는 분대장이 기지로 돌아가라는 말은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로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부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직감했으므로 조인(鳥人)으로서 먼저 귀환함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제 탄 생각할 여유가 없고 분대장기를 따라가 강하하면서 남아 있는 기총을 목표 주변에 난사하여 분대장기에 대공포화가 조준되지 않도록 분대장기를 엄호하고 3번기, 4번기가 무사히 동해 쪽으로 이탈하여 기지쪽으로 향했다.

전선을 넘어오면서 3번기 분대장기로부터 “4번기 왜 오지 말라는데 따라 왔어요, 그러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상 없지요?”라며 나를 걱정하는 것이다.

나의 답변 “아이구 미련한 산돼지 같으니라구. 지금와서 내 걱정하는 거요, 그렇다면 재차(공격) 들어가지 말지, 그래, 폭탄은 명중했어요?”

그의 답변 “그걸 말이라고 하시유, 명중 안 하려면 왜 다시 들어가요?”

나의 답변 “그건 좋은데 내 걱정도 하고,

돌아가서 기합 받을 걱정도 했어야지.”

그의 답변 “미안해요, 기지에 돌아가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지에 돌아왔으며 이 일이 알려져 3번기 분대장과 4번기 모두 호된 기합을 받았다. 그 기합의 이유는 “죽고 싶으면 땅에서 비행기 안타고 죽어야지, 가까운 비행기까지 없앨뻔 했잖아.”

2. 당시 갈등 처리를 위한 순간적인 나의 견해

가. 이와 같은 적지 상공의 공격 상황에서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분대장의 의도를 안 이상, 내가 적 상공에서 분대장기를 이탈하고 분대장 혼자서 공격하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규모는 작아도 분대장과 요기는 전투임무에서는 생사를 초월하여 협동심을 발휘해야 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신이 절대로 요구된다.

나. 분대장이 상부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당시 전장의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분대장의 판단 및 행동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다. 분대장기를 엄호해야 할 의무가 요기에 있는 것이다.

라. 분대장의 만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

부지시도 있었지만 미처 다 못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는 분대장을 엄호하는 것은 요기의 의무인 것이다.

3. 나의 결론

비록 분대장과 함께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결과를 얻었으나, 정상적인 판단으로서는 절대적 국익과 인도적으로 모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조직이고 직속상관의 지시를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본다.

결론을 내리고, 무언가 한 마디를 더 첨가해야 될 것 같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전대장이 공격 시 단 1회 패스만 할 것을 지시했고, 또 비록 계급이나 연령이 아래라도 당시 직속상관인 분대

장이 현장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면, 전시 적 전 상황에서 직속상관(On-scene commander)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라는 군율을 감안할 때 분대장 지시대로 동해로 이탈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분대장을 두고 혼자 동해로 빠져 나오는 것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 생각이며, 그리고 분대장의 지시는 자신보다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느꼈기에 위와 같은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비록 군율을 어겨 잘못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엄호 임무를 수행한 후 떳떳하게 함께 귀환하게 된 것은 편대정신, 전우애, Teamwork 정신에서 훌륭했다고 자위해보기도 했다.

- 김직한 중위는 그 후 공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전역 후 대한항공 707기장으로 1987년 11월 30일 바그다드 공항 이륙 후 인도양에서 행방불명되었음(북괴 공작원 김현희 관련사건) -

걸프전

사막 폭풍(Desert storm)작전



31기 사관 유보형

사담 후세인이 8년 여에 걸친 대 이란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국내 재정문제의 해결 및 아랍세계의 패권 장악과 영토확장의 야심달성 등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 1990년 8월 2일 전격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걸프전은 시작되었다.

쿠웨이트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넓이 정도의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은 이라크의 총 생산량 1천억 배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석유자원까지 확보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산유국이 되며, 세계유가는 고유가 정책을 주장하는 이라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만에서 미국 국내 석유소비량의 40% 이상을 수입하는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해를 같이하는 서방국가들, 쿠웨이트와 긴밀한 군사력관계를 맺고

있는 구소련 등과 협조하여 우선 이라크에 대한 경제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무력침략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의 결의에 동참하고,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6·25전쟁 시의 유엔군 도움에 대한 보답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지원단과 군수송기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

비둘기 공수작전

'91년 1월 21일 새벽 6시 김해공항에서 2대의 C-130 항공기가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을 향하여 우렁차게 이륙하였다.

1월 24일 새벽 2시(현지시각), 카라치 공항에서는 대한항공 DC-10 특별기로 공수된 국군의료지원단을 두 대의 C-130 항공기에 교체 탑승시켜 새벽하늘을 가르며 서쪽으로

2천km 가량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공항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 곳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에도 이라크가 다란 공항을 향해 스킵드 미사일 2발을 발사해 한밤중에 시민들은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던 전장지역이기에 승무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굳은 결의가 역력하였다.

다란 공항에는 환영플래카드를 내걸고 마중 나온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현지교민이 태극마크와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공군기를 탑승하고 이역만리 전장에 나타난 우리 장병들을 보자 모두 감격해했으며 그들의 상기된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국군의료지원단 현지공수작전은 마치 엔테베 인질 구출작전처럼 극비리에 어둠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장지역이기 때문에 민항기 이용이 불가했고 다국적군에의 동참을 반대하는 과격분자들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C-130 항공기 도입 후 첫 해외 전장지역 임무인 이 작전은 비둘기 공수작전이라 명명되었으며 걸프전 참전을 위한 비마(飛馬)부대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사막의 폭풍작전

비둘기 공수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공군은 다국적군의 수송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제56공수비행단(일명 : 비마부대)을 1991년 2월 13일 김해기지에서 창설했다.

창설된 비마부대는 C-130 수송기 5대와 병력 160명으로 편성되어 2월 18일 서울기지에서 열린 환송식에 이어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의 알아인 기지로 이동하였다.

현지 도착 후 5일간에 걸쳐 작전준비를 완료하고 2월 26일부터 비마부대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사막의 폭풍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기지는 왕실 전용비행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아 건설하고 있었으나 걸프전이 발발하게 됨에 미공군이 전개되어 사용 중이었다. 미 공군 공수사령부 예하 제1630전술공수비행단이 이곳에 근로자들이 철수한 막사를 개조, 숙영지를 만들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비마부대는 미 공수사령부로부터 부여되는 공수임무를 미공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1630비행단과 협조하여 수행하였다. 비마부대는 2월 26일 작전을 개시한 이후 4월 3일까지 총 323회, 비행시간 461시간 57분, 비행거리 133,337마일을 기록하며, 화물 713.3톤과 인원 1,450명을 공수하였는데, 이는 월남전 당시 은마부대가 약 7년 여간 수립한 공수실적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이었다.

특히 걸프전에서는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사막 한 가운데 모래를 다져서 만든 비정상기지(Landing Zone)에 이르기까지 공수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비마부대는 2월 28일 부시 미대통령의 종전선언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수작전을 전개하였으며 3월 25일 국방부 철수명령에 의거 4월 3일까지 공수작전을 완료한 다음 4월 6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4월 9일 김해기지에 도착, 4월 11일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작전환경 및 경험

비마부대가 모기지로 사용하는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기지에서 작전환경은 열악하였다.

우선 사막기후와 모랫바람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악기상하에서의 임무수행, 그리고 장비, 작전경험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공군과 동일수준의 야간 및 심야비행 위주의 공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제한된 항공기 부품 및 군수지원과 비행장 항법시설 미비(정밀착륙유도장비 미설치), 그리고 걸프지역에서의 공수경험이 전무했다는 점 등의 작전상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한국공군이 수행해야 할 작전지역이 6개국 27개 기지(아랍에미리트 알아인 기지

등 6개 기지, 사우디 다란 기지 등 15개 기지, 오만의 머스캣 등 2개 기지, 바레인 2개 기지, 쿠웨이트 1개 기지, 카타르의 도하 기지 등)를 대상으로 장시간 다구간 비행은 승무원 휴식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전시 최대 출격 비행을 방불케 하였다.

비마부대에 대한 임무부여절차는 사우디 다란기지에 있는 미공수통제본부가 알아인 기지의 미제1630공수비행단으로 임무를 할당하고 다시 비마부대로 임무를 할당하게 되는데 당시 알아인 기지에는 C-130 수송기가 미공군이 40대, 한국공군이 5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을 고려하여 미공군비행단의 공수 임무 중 약 15%인 1일 2 내지 3대의 항공기가 임무를 수행토록 할당되었다.

전장지역에서 어려웠던 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초속 40노트 이상이나 되는 세찬 모랫바람과 뇌우 속에서의 비행과 이라크군이 불지르고 달아난 6백 여 개의 유전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로 고도 1만피트 상공까지도 암흑천지로 변해 시계 제로상태에서의 비행은 잊을 수 없으며, 4월 3일 비마부대의 마지막 임무인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관에 보낼 장비와 보급품, 차량을 사우디 리야드 공항에서 우리 공군수송기에 싣고 폐허가 된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다른 나라는 수송기가 없어 육로로 수송을 했지만 우리는 태극마크도 선명한 공군기로 수송하

여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프전에 참전한 많은 다국적군에서도 비마부대는 신속하게 전장지역으로 전개하여 최단시간 내에 작전준비를 완료하고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한상황의 모랫바람과 유전에서 뿜어내는 연기로 시계 제로상태에서 한 건의 임무실패 없이 완벽하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한국공군의 비행기술은 미공군도

극찬할 정도로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고, 실전경험을 통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신장했다.

또한 걸프전쟁에 공군수송단을 파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특히 중동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폭넓게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걸프전의 경험이 대테러전에서의 청마부대와 이라크 자유작전의 다이만 부대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걸프전에서 얻은 또 다른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마음으로 듣기

1.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 동정엔 양면이 있음을 믿음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 생활에 활력
3. 반갑게 마음에 담긴 인사를 한다. ▶ 따뜻한 마음과 성공의 바탕
4. 하루 세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 건강의 기본, 즐거움의 샘
5.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 핏대 올릴 일 없어짐
6. 누구라도 칭찬한다. ▶ 자심감이 생기고 칭찬은 되돌아옴
7. 약속시간엔 가서 여유 있게 기다린다. ▶ 몸이 달지 않고 신용이 쌓임
8.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 기분이 밝아짐
9.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 거짓말은 죄책감으로 불안 조성
10. 때로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 ▶ 언젠가는 큰 덕으로 돌아옴

- 인터넷에서 낚시 바늘로 건진 지혜 -

비정규전

대간첩 작전 수기



11기 사관 최희영

◆ 작전개요

1967년 4월 17일 04:30 서해안을 경비 중이던 해군 PCE-52함과 PF-63함이 목덕도 서북방 6마일 해상에서 남하하는 정체불명의 선박을 추적하자 복귀 무장 간첩선이 사격을 가하며 북으로 도주함에 해군은 항공지원을 요청, 06:17부터 수원에서 F-5A 16대와 2대의 RF-86F 정찰기, 그리고 타기지에서 2대의 F-86F 전투기들을 출동시켜 무장 간첩선 50톤급 1척을 격침시키고 간첩 6명을 생포한 작전이다.

당시 중위로 이 간첩선 격침 작전에 참여한 당사자로서의 수기를 부탁하기에, 40년 전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일지 형태로 경험을 기록하게 되었다.

1. 작전수행과 관련된 환경

- 당시의 조종사의 거주, 주기장, 비상대기 -
나는 김포에서 F-86F기종으로 분대장(F-86F 비행시간 300시간) 임무를 맡고 있다가 1967년 1월에 F-5A/B 기종 전환훈련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 당시에는 분대장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기종 전환을 할 수 있었다. 조종사 관사가 부족한 시대였기

에 일부 비행대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수원 시내에 뿔뿔이 월세 또는 전세방을 얻어 살았다. 개인별 전화가 없어서 연락병들이 일일이 조종사 집을 방문하여 비상 연락을 하던 시절이었고, 조종사들의 출퇴근은 일명 ‘블루버드’ 라고 불리었던 버스와 천으로 지붕을 덮은 스리 쿼트 군용차로 하였다. 또한 수원비행장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이글루(엄체호)는 하나도 없었고 전투기들은 주기장에 일렬로 노천에 보기 좋게 주

기되어 있었다. 비상대기 항공기는 “H”빔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과 벽은 슬레이트로 마감한 건물에 주기하여 겨우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정도였다. 수원비행장에는 F-5A, F-86D, 그리고 RF-86F 등의 비행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몇몇 비행대대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사용하였던 콘서트 건물을 대대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고, 조종사 항공장구도 콘서트 건물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F-5A 기종은 초음속 최신에 전투기로서 대대별로 조종사들을 기종 전환훈련을 시키면서 한편으로 비상대기임무도 수행하고 있었고, F-5B(복좌)는 대대에 한대씩만 있어서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75인치 로켓 사격훈련은 당시에는 아직 SUU-20 발사대(Launcher)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로켓장착대(LAU-3A Pod)를 좌우측에 1개씩 장착하고 각 포드(Pod)에 로켓 2발씩 넣고 포드콘(Pod Cone)을 씌우고 이륙하였고 사격훈련이 끝나면 앞덮개(Cone)는 발사할 때에 깨져서 없어지고 빈 포드(Pod)는 저항은 많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착하고 착륙하였다. 그래서 로켓 사격 명중률은 발사대(Launcher) 관계상 별로 좋지 않았지만 출격당시에 이륙자료 작성 및 로켓 공격에 대해서는 다소 숙달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공해 합동작전을 위해 개발한

구서(驅鼠)훈련이란 것도 없었고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공해합동 훈련절차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초 간첩선 격침 작전 이후 8개월이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괴의 124특수군부대가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한 사태와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미국해군 ‘푸에블로’ 호 납북 사건 등을 계기로, 절실한 전력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공군의 모든 상황이 급변하였다. 비행장에는 항공기 업체호가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항공기를 분산 주기시키고, 조종사는 관사 건립으로 시내 생활에서 관사생활로 거주 형태가 변모하게 되었으며 비상대기실에서의 취침 횟수도 증가되었다.

2. 당시 빈발했던 북괴 도발

1964년 4월 17일 간첩선 격침 작전이 있기 전인 4월 5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판문점 부근, 서부전선, 중부전선, 그리고 중동부전선에서 유난히 북괴군의 침투가 많아져서 피아간에 총격전이 자주 일어났고 사상자도 발생하였다. 북괴군의 침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1967년 3월에 당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수근이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남한으로 귀순한데 대한 분풀이, 1967년 5월 3일에 실시되는 제6대 대통령 선거의

틈을 타서 헤이해지기 쉬운 민심을 교란시키려는 계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북괴 자체의 경제적 침체 등,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대세에 대하여 초조한 나머지 불안으로 만회하여 보겠다는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당시 해 · 공군 작전 상황

- 해군 상황

1967년 4월 17일 서해안을 경비 중이던 해군 PCE-52함은 새벽 04시 30분 서해안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약 18노트로 동쪽으로 향해하는 의아선박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간첩선은 이를 목살하고 태극기로 위장하면서 불을 끄고, 오히려 소화기를 쏘면서 뱃머리 방향을 동북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다시 변경해 도주하려 함에 이를 52함이 기함인 PF-63함에 보고, 63함은 호위구축함과 함께 위협 발포로 일단 북상을 저지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하여 5,500야드까지 접근하여 정선시키려 했으며, DD-91함은 퇴로를 차단하였다. 간첩선이 이에 불응하며 속도 30노트로 도주하자, 18노트 속력의 52함은 추격할 수 없게 되었고 05:45분 북위 37도 10분, 동경 125도 05분에서 해군 PF-63함과 교전 중이던 무장간첩선이 도주하자 06:03 항공기

의 긴급출동을 전술항공통제본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해군본부를 통하여 이 사실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해군과 공군은 이날 간첩선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나포할 계획이었으나 교전 중 동간첩선 후방 65마일 해상에 중공의 산동반도 해군기지에서 구축함으로 보이는 함정 1척이 급거 출동, 함세할 기세를 보여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 공군 상황

해군의 긴급요청은 곧 작전사령관에게 보고되었으며, 작전사령관은 참모총장 장지량 중장에게 보고하였다. 참모총장은 항공기를 출동시켜 간첩선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협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작전사령관은 무장간첩선을 색출하고자 수원기지에 방공무기 비상대기 중인 F-5A 전투기 2대를 작전해역으로 출격하도록 명령했다.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UN군 측에도 무장간첩선의 출현 사실을 통고하였는데 UN군 측은 교전규칙상 어긋남이 없도록 사태의 진전을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UN군 측과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장간첩선에서 발사한 기관총에 F-5A가 먼저 피격되자 공격을 가하게 되었으며, UN군 측도 전투기가 피격당하였다는 통고를 받고 서야 교전에 동의하였다.

- 비상대기 편조 구성과 출동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출근하였고, 내가 탔던 출근버스가 다른 코스의 버스보다 비행대대에 먼저 도착하여 대대 건물로 들어가는데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비행대대의 비행상황판에는 도착하는 조종사 순서대로 급하게 편조가 구성되었고 즉시 비상대기실로 보냈다. 편대장인 안상전(조간 12기) 대위와 요기인 최희영(공사 11기, 필자) 중위도 같이 수원 시내 거주하던 조종사들이다. 나는 당시 F-5A/B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작전가능 훈련을 완료한 지 1개월 정도되었고 F-5A/B 비행시간은 약 50시간 정도였다. 아마 우선 나를 비상대기실에 보내놓고 베테랑 조종사들이 출근하면 교체시킬 계획이었으리라 추측하였다. F-5A 기종으로 방공비상대기는 여러 차례 경험하였지만 공격용 비상대기 임무는 처음으로 부여받았다. 사실 당시에는 공격용 비상대기 임무 사례는 거의 없던 시절이다. 개인 항공장구를 갖추고 비상대기실에 도착하니 2대의 F-5A에 이미 로켓 장착대(LAU-3A Pod)가 좌우측 각각 1개씩 장착되어 있었고, 포드 1개 속에는 19발의 로켓이 장진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상대기실 전체가 긴장감이 돌고 몹시 분주하게 정비사와 무장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의아선박이 나타나서 수원에서 이미 방공비상대기 4개 편

대가 비상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항공장구를 좌석에 얹어놓고 항공기 외부 점검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비상대기실에 들어와서 처음 경험하는 2개의 로켓 장착대에 완전무장(38발)한 제원으로 이륙자료를 작성하고 편대장이 출동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 비상출동(Hot Scramble)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호출부호 “Roger Gold, Hot Scramble”하면서 비행단 작전부(WOC)로부터 인터폰도 울렸다. 실제 상황의 비상출동이라 긴장감은 있었지만 평소 많은 훈련으로 자신감은 넘쳤다.

4. 비상출동/간첩선 격침

1967년 4월 17일 06:13 방공비상대기 첫 번째 편대에 출동지시가 내렸다.

▲ 06:17 제1편대 이륙(편대장 : 대위 이진춘 공사 9기, 요기 : 중위 지장현 공사 11기)

이륙하여 기지로부터 120마일 떨어진 서해에서 무장간첩선을 발견하였다.

〈편대장 진술 :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항공기 시동을 걸고 지상 활주하면서 출동명령 내용을 받고 06시 17분 이륙했더니 지상지휘소로부터 서해상에 간첩선이 출동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첩선의 윤곽을 대강 이해한 다음 비행고도 8~9천 피트

상공에서 하나의 점으로 아주 작게 보이는 간첩선을 발견하고 고도 3천 피트로 급강하하여 보니 50톤급의 선박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괴선박의 기수가 북쪽으로 향했고 배 뒤에 생긴 흰 물줄기를 볼 때 시속 30노트로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죠. 발견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하니까 괴선박은 즉각 방향을 180도로 전환 위장전술을 쓰더군요. 그때부터 북상을 최대로 저지시킨 셈이 됩니다. 또한 공격하는 양 급강하하니까 그때그때 회피기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간첩선이라는 것을 알고 요기인 지장현 중위에게 해군함정을 유도게 했습니다.>

▲ 07:03 제2편대 이륙(편대장 : 대위 강 인선 조간 12기, 요기 : 소령 문창수 공사 5기)

전술항공통제본부와 중앙관제소 및 백령도 레이더 기지로부터 목표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편대장 진술 : 07시 03분 기지를 출발 20분 후인 07시 23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전 편대장 이 대위로부터 인계받은 목표를 확인하고 흰 물줄기가 북으로 뻗은 것을 보았죠. 그래서 전술항공통제본부에 사항을 보고하니까 최선을 다해 북상도주를 저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비행기로 선회신호를 하니까 응하지 않고

계속 질주하기에 위협적으로 공격태세를 취하는 것같이 급강하하니까 대공기관포가 날아들었습니다. 08:10 기체가 약간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그 중 1발이 기체에 피탄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탄되었다, 비행에는 지장 없다”는 것을 상황실에 보고했다. 그때의 심정은 금방 때려잡고 싶었는데 사격여부를 묻는 강 대위 편대에게 전술항공통제본부에서 공격을 하지 말고 고도를 유지하여 경계태세의 완벽을 기하고, 기지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항공기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뒤편대에게 인계하고 08:30 기지에 착륙하여 기체를 살펴보니 적탄이 맞은 곳은 유압장치에서 불과 5밀리 떨어진 동체 하방에 있는 속도 제동기에 피탄 구멍이 뚫려 있었다. 조금만 위로 맞았다면 산소통이 터질 뻔했다.>

작전이 종료된 후 많은 조종사들이 주기장에 나가서 피탄된 구멍을 직접 보았으며, 항공기가 활주로를 개방한 후 강 대위가 속도 제동기를 열은 지상 활주로(Taxi Way) 지점 부근에서 탄두를 다른 사람이 회수하였다.

▲ 08:00 제3편대 이륙(편대장 : 소령 김 동섭 공사 5기, 요기 : 미상)

<편대장 진술 : 강 대위로부터 인계를 받고 해군함정 40마일 전방에 시속 30노트로 중공 무장선에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대공포

로 발악하면서 도망치는 괴선을 발견하고 기선을 제압 도주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때 해군에서 발포를 요청하기에 공군지휘소에 연락하니까 식별요격을 하다가 간첩선이 재차 사격하면 발포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러나 명령은 20밀리 기관포로 위협사격해서, 격침시키지는 말고 기총소사로 끝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차례의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해군함정과의 거리는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 08:42 제4편대 이륙(편대장 : 대위 우현기 공사 9기, 요기 : 미상)

<편대장 진술 : 현장으로 비행하면서 들으니까 먼저 출동한 제3편대에게 발포명령을 하달하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09:18 전술항공통제로부터 간첩선을 격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해군함정이 간첩선으로부터 약 30마일 떨어진 남쪽에서 간첩선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 간첩선을 발견한 후 기총사격을 하였다. 그런 다음 상승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대형선박이 항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공비행으로 대형선박을 확인하니 상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멀리 선체를 보이기 시작한 중공무장선이 간첩선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간첩선도 급선회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대공사격을 가해왔기에 간첩선을 향해 기총

을 발사했습니다.>

▲ 09:11 제5편대 이륙(편대장 : 대위 안상전 조간 12기, 요기 : 중위 최희영 공사 11기)

<안상전 대위 진술 :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해보니 간첩선 출현으로 기지 내가 온통 떠들썩하더군요. 그래서 때는 바로 이때다 하는 신념으로 애기를 몰고 목표지점으로 비행하는 동안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다. 기상상태는 15,000피트에 구름이 덮이고 시정은 5마일로 좋은 날씨였다. 09:31 현장에 도착하였다. 전번 편대의 기총소사를 받고서도 악착같이 도망을 치더군요. 로켓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09시 35분 로켓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두 번째 로켓 공격할 때 간첩선은 이미 불을 뿜으며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고, 2명 이상의 간첩들이 바다속으로 뛰어 내린다는 요기 최 중위의 보고를 받고 이를 바로 해군함정에 연락했다. 저공비행을 하면서 선체의 반 이상이 물속에 잠기는 장면을 기총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최희영 중위 진술 : 안 대위님과 같은 편대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같이해야 된다고 다짐했다. 내 자신의 생사여부도 안 대위의 명령과 직결되기 때문에 긴장한 태세로 출동했다. 목표상공에 도착하여 앞 편대의 안내에 따라 목표물을 쉽게 확인하고, 안 대

위님을 따라 목표물과의 폭과 고도를 감안하여 로켓 공격 장수를 잡고 무장스위치와 조준경 각도 조작을 완료하였다. 고도 8,000피트에서 강하각 30도로 맞추면서 편대장과 충분한 거리로 떨어져서 공격목표로 진입하였다. 편대장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Dry Off)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평소 대지사격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공격제원이 잘 맞아 침착하게 왼쪽 포드에 장진되어 있던 로켓 19발을 먼저 발사하였고 로켓의 후미 불꽃들이 춤을 추듯이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갔다. 직진 상승하여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아래쪽을 확인하니, 목표물은 보이지 않고 로켓 탄착으로 생긴 물기둥이 해면에서부터 공중으로 높게 솟아 올랐다. 물기둥이 가라앉자 간첩선의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온통 바다에 흩어져 있어 명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편대장과 나는 번갈아 가면서 로켓 사격을 2번씩 38발을 모두 발사한 후, 그 다음부터는 저각도로 20밀리 기총사격을 하였다. 화염에 싸인 함정에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푹푹히 보았고 이를 편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후속 편대가 올 때까지 기총사격을 하였다. 격파된 목표물 주변에는 많은 나무판자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처참하게 파괴된 광경이었다.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편대가 올 때까지 현장상공을 선회하였

고, 간첩선은 이미 침몰하기 시작하여 선체 길이의 4분의 3 정도(선미부분)만 해면 위로 남아 있었다. 후속 편대에게 인계하고 모기지로 귀환하는데 현장의 사진 촬영을 위하여 RF-86F 2대가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교신 내용을 들었다. F-5A 기종으로서는 햇병아리 조종사이지만 어려운 해상공격과 중대한 작전에 참전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 10:09 제6편대 이륙(편대장 : 대위 김태창 공사 7기, 요기 : 미상)

<편대장 진술 : 안상전 대위로부터 현장을 인계 받은 후 계속 확인하면서 통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첩선이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놈들은 파손된 배의 나무 조각을 타고 해군함정에 대항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11:12 제7편대 이륙(편대장 : 소령 전춘우 공사 6기, 요기 : 미상)

<편대장 진술 : 맨 마지막으로 적함을 공격하고 해군함정이 진로를 바꿔 남하하는 것을 보고 기지로 귀환하였습니다.>

▲ 12:04 제8편대 이륙(편대장 및 요기 미상)
해군 PF-62함의 구조작업을 지원하였다.

▲ RF-86F 편대 이륙(편대장 : 중위 강영식 공사 12기, 요기 : 미상)

2대의 RF-86F가 출동하여 격침 현장 사진 촬영하였다.

(작전사령부에서는 2대의 RF-86F 정찰기를 출동시켜 사진촬영과 완전 침몰상태를 확인하도록 명령하였다.)

5. 귀환 및 착륙

수원기지로 귀환 도중 나는 현재 연료잔량과 비행장까지 남은 거리, 그리고 연료소모율을 계산하여보니 연료잔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덮개(Cone)가 없는 로켓 장착대(Lau-3A Pod)는 저항이 많아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있었다. 특히 요기는 편대장보다 행동반경이 크므로 항상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편대장에게 빈 로켓 포드를 투하할 것을 건의했다. 요기부터 먼저 투하하라는 편대장의 지시를 받고 필요한 스위치를 조작한 후 투하 버튼을 누르니까 빈 포드가 항공기 뒤쪽 밑으로 낙엽처럼 떨어져나갔다. 항공기 기술도서에 투하절차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공군에서 실제로 투하해본 조종사는 최초인 것 같다. 편대장에게 잘 투하되었다고 보고하니깐 편대장도 투하하였다. 연료가 부족했지만 다행히 작전 당일 기상은 매우 양호하여 우리는 레이더 유도 정밀접근이나 정상진입을 하지 않고 서해안에

서 활주로 끝으로 바로 진입하여 10:34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귀환도중 비행장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연료관계로 너무 초조한 나머지 간첩선을 격침시켰다는 기쁨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입안에는 침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었다. 주기장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안 대위님과 함께 주기장에 나와 계시던 비행대대장(박홍순 중령 공사 2기)님께 “출격 끝” 보고를 하였고 비행대로 들어가니 베테랑 선배조종사들이 두 줄로 서서 환영하여 주었다.

6. 전과 확인(체포된 생존자 심문 결과)

- 간첩선 행적 : 4월 16일 오후 5시에 황해도 해주를 출항하여 4월 17일 서산 앞 바다에서 간첩을 침투시키려고 내려오다가 04:30 해군 52함에 발견됨.
- 격침 위치 : 목덕도 서북방 6마일(해점 : 36-58N 125-41E)
- 간첩선 선명 : 북덕호
- 간첩선 크기 : 50톤
- 무장 : 중기관포 4문, 경기관포 2문, 고성능 기관포 1문
- 노획품 : 시계 5개, 휴대용 나침반 2개, 과도 1개, 총 받침대 2개, 황색과 청색의 컴퍼스 각각 1개, 구명대 2개
- 탑승인원과 구조내용 : 간첩선에 탔던 15명 중 3명이 북괴간첩이었고 그 외 12

명은 호송임무를 띤 선원들이었다. 9명은 공군의 직격탄을 맞는 순간 절명했고, 표류하던 6명이 해군함정에 구조되었고, 간첩 3명 중 1명은 인양직후 함상에서 절명했다. 생존자 5명(중상 3명, 경상 2명)은 4월 17일 밤 9시 반경 해군 PF-63함에 실려 인천항에 도착하여 서울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현장 확인 : PF-63함에서 70야드 접근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5분의 1만 남아있던 선미에 2명의 시신이 누워있는 사진과 노획물, 그리고 공군에서 공중 촬영한 사진들이 일간지에 공개되었다.
- 공군의 피해 : F-5A 전투기 1대가 속도 제동기에 기관포탄 1발 피탄되었다.
- 상훈 : 공군은 휴전 이후 최초로 항공전과를 올렸고 1967년 5월 2일 오전 공군본부 광장에서 참전조종사 및 작전 관련 요원들에게 무공훈장과 포장, 그리고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오후에 수원 기지로 귀대하여 주기장에서 수상자들이 비행단장(이양명 준장)에게 포상 신고식을 하였다.

7. 담화문 발표 및 기자회견

▲ 국방부장관(김성은) 기자회견

4월 18일 오전 11시 국방장관은 생포간첩 심문결과를 발표하였다.

해군의 북괴간첩선 발견과 공군에 지원 요청한 경위와 구조 활동 결과, 그리고 생포 간첩으로부터 취조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를 앞두고 북괴의 남침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북괴는 예년과 달리 금년 정초부터 육지와 해안을 통해 많이 침투하고 있으며 또 정부에 대한 비난의 유인물(빠라)을 기구를 통해 공중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적이 휴전선상에 있는 비무장지대 중앙 분계선을 넘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군은 단연 분쇄할 것이며, 적의 해상 침투에 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북괴의 기도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대변인(홍종철 공보부장관) 담화

정부 대변인 홍종철 공보부장관은 4월 18일 상오 백령도 근해에서 북괴간첩선을 격침한데 대해 [공명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려는 북괴의 계획적인 대남 간첩활동에 국민 각자가 가일층 경각심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자위적 보복조치]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 해군참모총장(김영관)의 찬사

도주하는 간첩선을 장시간의 추적 끝에 격침시킨 것은 공군조종사들의 우수한 전투능력의 결실이라고 격찬하고 북괴의 대남침투

공작에 대비,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언명했다.

8. 교 혼

공해합동작전의 중요성 인식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 편대(제5편대)가 목적지 상공에 가는 동안, 그리고 귀환할 때도 앞편대와 뒤편대의 교신 상태를 수신하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해상에서 편대간 목표물의 인수인계가 아주 중요하였다.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았기에 참조점

이 없는 해상 상황이지만 제원을 잘 유지하여 실수 없이 공격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임무 중에 항공기 연료관리의 중요성과 상황 판단을 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제 상황에서 체험했다.

그리고 사격 공격 시에 적의 대공포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격 방향을 매번 변경시키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느꼈다.

작전이 종료된 후 참전자(공군 및 해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면 면밀하게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하고 보다 발전적인 전술을 도출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해 본다.

마음으로 듣기

리더의 권위는 봉사와 희생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리더십은 영향력과 권위에 바탕을 둔다.
권위란 우리가 리드하는 이들을 향한 봉사와 희생에 바탕을 두며, 그들의 당면한 욕구를 규명하고 충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와 희생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
그것은 노력이다.

- 제임스 C 헌터, '서번트 리더십에서' -

연합(1)

“NO.1 뒤에 두 마리 있는데, 쓸까요?”



46기 사관 이성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연합공격편대군훈련(Combined Large Force Engagement Exercise)에서 겪었던 내용이다.

전체 임무를 계획하고 지휘하는 임무편대장은 군산기지에서 근무 중인 미 공군 교관급 조종사였으며, 나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 공격편대군의 생존성 향상을 도모하는 대공제압임무 편대장(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ce Commander : SEAD)으로 참가했다.

이전에 참가했던 연합공격편대군과 한미 상호정비지원 임무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동료조종사들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특별한 일화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장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기본적인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무장운용 능력, 실제 임무수행시 혼잡한 통신상황, 그리고 한·미 공군간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도 기인된다. 한국 공군

은 대부분의 시스템을 미 공군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미 공군과 흡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라 각 비행단 및 기종, 더 작게는 대대별 여건에 따라 절차의 보완이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된 듯하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라 함은 사소한 절차 수행에서부터 작전음어, 전력운용에 대한 개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비근한 예로 한국 공군은 모든 비행준비를 담당조종사가 직접하는 반면 미군은 조종사와 분야별 전문 부사관, 병사로 구성된 임무준비반(Mission Planning Cell)을 운영하며, 공격편대군 임무에 있어서도 한국 공군은 2기 단위의 편대를 기본전력으로 하지만, 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전체가 위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4기 단위의 편대를 기본전력으로 운영한다.

또한 작전음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쓰

는 주디(Judy)라는 용어를 미 공군 조종사들은 킵콰이엇(Keep Quiet), 즉 우리들이 사용하는 무선침묵(Radio Silence)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무 전에 계획된 이틀간의 임무편대장 회의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개인적으로는 교범에 명시된 작전음어를 숙지하고, 이전에 수행했던 연합임무의 무선 통화내용을 분석한 후 비행에 임했다. 이러한 준비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생소한 작전음어나 통화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임무 중 아쉬웠던 점은 이번 임무에서도 복잡한 무선통신 상황에 의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관제를 담당했던 미 공군 지상관제기구와 임무 조종사들 간에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중조기경보 체제(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 AWACS)와의 교신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미 공군 소탕작전 전력(Sweep)의 전장 진입시기와 기타 한국 공군 임무편대의 상승 및 고도정보 요청시기가 겹침으로써 엄청난 무선통신 혼잡이 발생되었다. 결과적으로 적 공중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진입하는 소탕작전 전력이 전장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교전구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탕작전 전력 임무 편대장은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종사들의 통화가 계속되자 '주디'라는 용어를 몇 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주디'의 의미가 위에 소개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한국군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 역시도 전장상황정보나 항적에 대한 적아식별 정보 등이 조종사에 의해 요구 또는 관제기구로부터 제공될 때 불필요한 통화를 삼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디'에 위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디브리핑 시 해당 조종사에게 직접 물어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SEAD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미 공군 소탕작전 전력과 마찬가지로 '공격 편대군 전방에서 적기 소탕 임무(Pre-Strike Sweep)'를 수행하게 되어있던 나도 소탕작전 편대 30초 후에 두 번째로 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그 때까지 계속된 복잡한 무선통신 상황으로 인해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에 대한 적아식별 정보를 적기와 근거리로 접근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가시거리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 기회를 상실한 채, 적기를 육안 식별한 후 대응기동을 구사해야만 했다.

그 당시 적기 임무를 수행한 항공기는 2기의 KF-16과 2기의 F-5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 편조를 요격하기 위해 접근했던 것은 2기의 F-5 편조였다. 다행히 적기를 먼저 식별한 우리편조는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교전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기를 격추할 수 있었다.

적기와의 교전을 마치고 임무 경로로 복귀하는 도중에 정면에서 또 다른 항공기 두 대가 우리 편조를 향해 접근하는 것이 근거리 레이더상에 포착되었다. 대공제압임무 수행까지는 시간상의 여유가 남아있었고, 이미 항적이 가시거리 내로 접근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육안확인을 시도했다. 확인결과 항공기는 2대의 F-16이었으며, 육안확인 후 우리 편조를 향해 격렬한 공격기동을 수행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렵게 미사일 발사 기회를 포착한 순간, 갑자기 적기가 엄청난 양의 교란용 조명탄(Flare)을 투발하며 회피기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실전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에 잠시 감탄하기도 했지만, '저 대대는 교란용 조명탄(Flare)이 많이 남아있나(?)' 하는 의구심과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싸대면 작전계장이 몹시 싫어할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다. 장착된 교란용 조명탄을 다 쏟아낼 듯이 투발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니 항공기 색깔이 KF-16보다 짙은 회색이었으며, 수직꼬리날개 부분에 한국 공군에는 없

는 색깔이 식별되었다. 앞서 전장에 진입했던 미 F-16 소탕작전 전력 4기 편대 중 한 분대였던 것이다. 그때의 허탈함이란... 쓸데없이 아군끼리 싸움질을 해댄 것이 어이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장발사 전에 식별한 것이 매우 다행스럽기도 했다. 급격하게 돌아가던 선회기동을 멈추자, 소탕작전 편대는 곧 내 항공기 후미의 무장발사 구역으로 진입했다. 그러자 우리 편조의 NO.2 요기가, "NO.1 우로 급선회(Continue Hard Right!), NO.1 뒤에 2마리 있는데, 쓸까요?"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공격허가를 요청했다.

NO.2의 무장발사 요청을 불허하고 뒤를 돌아보니 우리 편조의 훌륭한 NO.2는 어느새 소탕작전 편조의 후 상방에서 완벽한 엄호위치를 취하고 있었다. 몹시 아쉬워하는 NO.2에게 그들이 아군임을 주지시키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교전 종료 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임무 경로로 방향을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육안식별로 아군의 피해를 막기는 했지만, 훈련이 아닌 다급한 실전상황이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적기와 아군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실전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적기가 아닌 아군에 의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전력과 사기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이다. 정확한 적아 식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였다.

그러나 적절한 무선 통화로 상황을 전파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전이 한참 진행되기 전에 우리 편조가 특정 지역에서 교전 중임을 라디오 상으로 통보했다면, 같은 주파수 상에 있는 아군이 이를 인지하여 불필요한 교전을 좀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활한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임무 조종사들도 다소 번거롭다고 연합임무를 기피하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디오와 레이더 만으로 전장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미 공군이 사용하는 표준 통화와 작전음어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미 공군의 시스템과 제도라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실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재산, 즉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웃으면 좋아요

<예일대학에 감시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떤 분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방콕대학을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동네 경로당이나 찾아다니는 동경대학에 입학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갔답니다.

말기 폐암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예일대학이 그곳입니다.

예일대학에 가야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하니 우리 함께 예일대학에 등록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연합(2)

공중현장 지휘(Killer scout)의 사례



46기 사관 강성권

서로 다른 국가의 연합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의사소통일 것이다. 일사분란하게 효과적인 지휘 통제가 절실한 전쟁에서 의사소통의 결여는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연합작전의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느꼈던 바가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연합작전 기간 중 공중현장 지휘(Killer scout)에 관한 임무였다. 적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적진의 깊숙한 곳에 미리 진입하여 기상, 임무환경, 적 지대공 상황과 적 후방의 지원병력 및 물자의 표적화를 임무로 하며 후속 진입 공격 편조에게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및 고려사항을 통보,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병행하는 작전이었다. 공중현장 지휘 임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적 표적화에 적

합한 한국 공군의 지상 표적화 장비(Targeting pod)의 장착은 필수였다.

임무지역은 강원도 산골이며, 표적은 최근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이동형 스킨드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 가상 이동형 지대공 미사일(SAM) 트럭에 대한 표적화와 공격을 위해 진입하는 후속 전력인 미공군 F-16편조 조종사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임무였다. 본래 공중현장 지휘는 전장 상황 판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입해야 하나 모기지와의 임무 지역과의 거리 및 연료 문제로 미공군 편대의 진입 불과 몇 분 전에 도착을 했다. 기상 상태 또한 중고도 이상은 수평시정이 좋지 않았으며 강원도 지역 통신 특성상 잡음이 심한 애로사항도 겹쳐서 편조간 공간 분리에 각별한 주의도 필요 했었다. 미리 도착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관제사와 표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즈음, 심한

잡음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미공군 조종사의 진입 의도를 통보받았다. 기상 파악에 따른 후속 편조의 선회 대기지점 선정과 NO.2에 대한 대형지시, 관제사 표적 정보에 대한 해당 지역 진입 및 지대공 미사일 트럭의 확인, 표적화 장비로 표적화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 한순간에 펼쳐진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편조간의 공간을 분리시키고, 미공군 조종사에게 전반적 기상 상태를 통보하여 비교적 기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대기를 지시하면서 관제사에게서 받은 표적지역의 이동 중인 지대공 미사일 트럭을 찾기 위해 접근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동표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이었는지 표적의 좌표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표적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주시하고 있을 즈음 때마침 주변의 도로에 지대공 미사일 트럭과 유사한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둘러 표적 좌표를 최신화(Update)한 후 미공군 조종사와 교신을 시도했다.

Falcon "A" "F/C "A", I will give you target information ready to copy?
"Roger" "I will give you target coordinates, N00 00 00, E000 00 00, target description moving vehicle with the SAM, make attack!"

"Roger" 통신잡음으로 수회에 걸쳐 이루

어진 통화이기는 했지만 비교적 쉽게 마무리 되는 듯 했다. 사실 꼬불꼬불한 산비탈 도로를 따라가는 조그만 트럭이라는 점과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지만, 언어구사 능력과 연료 및 통신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었다. 그러나 그러한 안도감도 잠시 '해당좌표에 아무 것도 없다' 라고 추측되는 내용의 미공군 조종사의 짧은 답신과 함께 'targeting pod' (지상 표적화 장비)라는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임무지역의 좁은 가지거리 내에서 주변의 높은 산 계곡아래 곡선으로 휘어가는 조그만 트럭을 2~3분 내에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좀더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합작전의 감초, "Say again!"을 외치는 순간 약간의 다급하면서도 보다 속도감 있는 불명확한 'targeting pod' 답신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년 선배였던 NO.2와의 토의 끝에 혹시 미공군 후속편조에 지상 표적화 장비(targeting pod)가 장착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결단을 내렸다. Do you have a targeting pod?, "Don't you have a targeting pod?"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에 듣기 힘든 상태의 교신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F/C "A", F/C "A" Radio check?" "F/C "A", F/C "A" Radio check?" 또 얼마쯤 지났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미공군 편조 대신 낮익은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F/C “A”, 임무종료 하셨습니다?” “미공군 편조 귀환하고 있습니다.” “F/C “A”, Roger.” 누가 무심한 것이었을까?

전장의 상황은 아마도 더 급박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평소 훈련이 실전을 위한 준비라지만 훈련을 전시와 같이 해야 하는 관점에서 공중 현장 지휘관의 역할이 미흡했음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적으로 임무 계획 및 진행 단계에서 예상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연합작전에 있어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는 때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결과 도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가운데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집단의 부단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웃지 못할 사례를 들어 보았다.

마음으로 듣기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다.

원수는 맞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 알갱 -

합동

야간 공해합동훈련(구서)의 교훈



13기 사관 이종대

70년대 초부터 북한은 해상을 통해 간첩선을 자주 침투시켰다. 해군은 아군 함정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간첩선이 도주할 경우 항공력 지원을 요청해와 이에 대비한 비정규 전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간첩선 침투는 주로 심야시간에 이루어져 이를 대비하는 훈련 또한 심야에서 이루어졌고 사전 적응훈련이 요구되므로 숙련된 조종사 중에서 선발하여 단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 본 훈련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었으며 이 어려움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다. 당시 훈련에서 얻은 비행경험은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완책이라 사료되어 재음미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훈련조종사 선발은 총비행 500시간의 분대장급 이상으로 해기종 야간비행 200

시간 비행경력자이며 야간 비행착각과 착각 유발 관련사항, 그리고 해상훈련에 관련된 지식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주간 사격훈련은 기총, 로켓 사격 등이며 통상 여주, 낙동, 용정, 매향리 사격장에서 실시되었다.

참고로 최근 주한 미 공군은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 태국, 오키나와 등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야간사격훈련은 주간사격방법과 유사하나 캔들로서 목표를 표시하여 활용하였고 훈련 초기에는 단좌 전투기로 실시하다 복좌기로 운용하였다. 공격 진입각도는 주간보다 낮은 5~10도로 진입하여 풀업(Pull Up) 시에는 2~3G로 항공기를 당겨야 하는데 이때 많은 조종사가 비행착각에 돌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비행착각 유발원인은 귀 내부에 평형감각을 담당해주는 삼반구관 기능이 갑작스러운 “G” 증가와 자세 변화로 평형감각을 유지해 주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반구관 기능에 의지하기보다는 비행자세계기만으로 자세를 정확히 잡아주어 수평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간적으로 늦어지거나 잘못된 조치되면 견잡을 수 없는 이상자세로 악화되어 비행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행착각 발생은, 기동 중 강하하다가 상승할 때, 운중 비행이나 야간비행 중 항공기가 선회기동으로부터 정상자세로 회복 중, 편대 비행 시 요기위치에서 단기임무로 분리되는 단계에서 야기된다. 한편, 기총이나 로켓 발사 시 나오는 섬광으로 인해 암순응이 파괴될 경우 더욱 심하게 착각현상이 발생되었다.

해상 임무지역상공의 조명탄 투하는 수송기(C-46, C-54, C-123 등)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그 후에는 복좌전투기에 조명탄을 장착하고 긴급 발진하여 임무지역에 신속히 접근하여 조명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장시간 후속 작전을 대비한 주 조명임무는 수송기가 담당하였다.

해상에서의 임무절차는 해군함정 후미 약

2~3,000미터 후방에 표적(Spar Target)을 예인하고 항행하면 조명기로부터 투하된 불빛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 장수를 만들어 표적을 공격하는 임무인 것이다.

이는 함상 파견 공군통제관, 조명기, 전투기 3자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추어 표적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표적확인, 진입허가, 조명탄/조명기 확인, 타이밍 유지, 고도, 속도, 각도제원에 맞는 무장발사 자세 파악 등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임무였다.

공격기는 낮은 고도에서 불을 밝혀주는 조명기의 도움을 받아 높은 고도에서 표적을 식별하여, 조명탄보다 낮은 고도까지 강하, 무장을 발사한다. 발사 후 2~3G의 중력을 받으면서 항공기 기수를 상승시키는 회복단계에서 바로 조명 고도를 벗어나면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므로 이때 대부분 임무 조종사는 빈번하게 비행착각에 돌입되곤 하였다.

야간, 매항리 사격장에서 단좌 2기 편대 사격임무 완료 후 편대로 재집합할 때 요기인 본인은 장기에 접근 중 배면상태의 자세로 접근하는 비행착각이 발생되어 접근을 할 수 없어 편대장으로부터 차분하게 조언을 받음으로써 비정상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해상훈련 중 발생한 과거사례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훈련 중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개 단좌기 중에서 많이 발생되었지만 복좌기인 경우도 전·후방석의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운영 미비로 인하여 안타깝게 정상자세로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저고도 침투훈련 도중 기상악화로 운중으로 진입 시 요기는 장기와 이탈되면서 계기비행 전환이 늦어 자세파악 실패
- 태풍대피를 위해 타기지 전개 중 구름에 진입하며 자세파악 실패
- 해상시정이 양호하지 못하여 자세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공중사격훈련 폴업(Pull Up) 중 자세회복 실패
- 복좌 항공기 전·후방석 계급차가 너무나 높아서 그런지 야간 해상 사격 후 회복 못한 사례
- 민항공기가 이륙직후 운중 진입 중 자세계기 비정상 지시로 자세유지 실패
- 1999년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 존과 그의 부인이 탑승한 항공기가 뉴욕-보스톤 간의 야간비행 시 대서양의 마서스비너드섬 부근에서 비행착각으로 자세파악/유지 실패 등이다.

지상대조물이 없는 해상에서의 합동훈련은 고도와 자세 판단이 어려워 6:4 정도로 계기위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계기위주로 비행을 하더라도 자세계기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자세계기 내부에 수평자세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시 포인트가 스카이 포인터(Sky Pointer)이며, 바로 이 지시 표시가 수평자세를 잡아주는 핵심 지시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행시 절 나는 이 마크를 하느님처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여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이 마크쪽으로 बैं크 스케일(bank scale)을 일치시켜주면 수평자세를 유지해 주어 자세를 잡아 주기 때문이었다.

복좌비행기에서는 동승 승무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서는 분위기(Rapport)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호임무분담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조종석 자원관리(Cockpit resource management : CRM)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설명한 자세계기에 대한 정확한 판독 및 즉각적인 조치와 동승 승무원상호간 조종석 자원관리(Cockpit resource management : CRM)절차를 이행해 주면 어떠한 비 정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편대장, 교관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동승자가

과감한 조인과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종석 분위기를 민주화 하여 부적절하거나 비

정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각 조치 및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음으로 듣기

<돈으로 살수 없는 것>

돈으로 사람(person)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spirit)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clock)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tim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book)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wisdom)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medicine)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health)은 살 수 없다.

공중전투

전투기동능력 배양을 위한 제언



14기 사관 신재철

항공기와 탑재장비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전투기동과 적용전술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추력 대 중량비(thrust/weight ratio)의 증가, 탑재 레이더 성능, 기동(maneuvering)성능, 화력통제체계(weapon control/firing system)성능, 후방경보레이더(Rear Warning Radar) 성능의 향상은 기동과 전술 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요인(要因)들이다. 기동이 다양해지고 전술이 발전되었다 하여도 기동과 전술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가, 고성능, 최신예 항공기 보유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향상된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인 훈련으로 보다 발전된 전술전기를 연마하여 전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겠다.

주변 적성 상대국의 공군력도 빠르게 발전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은 본 기고문에서 지면의 제약으로 기동과 전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한국공군의 전술전환과정의 간단한 소개와 전투조종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투기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방법과 조종사의 생존성 제고, 그리고 앞으로의 훈련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전투기동전술의 전환과정

한국공군은 70년대 중반까지 4기 전술대형(fluid four) 전술훈련을 수행하였으며, 미공군에서 70년대 초반에 개발하여 실제훈련에 적용하고 있던 2기 전술(double attack)은 76년도 후반 오키나와 주둔 미7공군 이기종간 공중전투훈련 팀(DACT team)의 주

한 미공군 순회교육 시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새로운 전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산, 군산,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미공군 F-4D 부대의 DACT 훈련에 10전비에서 가상적기로 F-5B와 후방석 교관 조종사를 지원함에 따라 미공군 훈련에 참여하여 한국공군 최초로 새로운 전술훈련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 해 F-5E의 신규 도입에 따른 기종 전환 교육을 미국에서 이수한 조종사들이 귀국하여 광주기지에서 국내 기종 전환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술선회(tactical turn)와 피치백(pitch back), 슬라이스 백(slice back) 등의 기본적인 전술선회와 컴백 머뉴버(come back maneuver)를 교육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공군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차 도미했던 요원들이 귀국함에 따라 '78년 후반 현 전술개발본부 전신인 DACT team이 수원기지에서 창설되어 자체 교관훈련 후, 전비행단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기종 공격(double attack) 전술을 경험한 조종사가 소속된 비행대대에서는 4기 전술대형(fluid four) 전술과 병행하여 새로운 전술훈련을 실시한 반면, 그렇지 못한 부대에서는 새로운 전술훈련이 지연되었으나, DACT team의 순회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위해서도 double attack 전술훈련을 자연스럽게 실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대별 신전술 적용에 2~3년의 時差가 있었다.

이러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일선 조종사들의 새로운 전술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와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사실과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동맹국의 전술변화에 5년 이상의 시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소재 규명을 떠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실이었다.

공중전투기동훈련 강화방안

전투기 출격의 최종 목표는 적기 또는 지상 목표물에 대한 무장발사이다.

무장발사의 최종 단계 진입은 적절한 기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투 조종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기동훈련(Basic flight maneuver : BFM)의 내실화이다.

Double attack 전술에서는 요기개념이 없어지고 대형자체가 횡적, 종적, 수직으로 분리된 위치에서 상호지원의 파트너(Partner) 개념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편대 구성원 각자의 BFM 능력은 필수적인 구비요건이다. 또

한, 교전 중 상황변화에 따른 조연 능력과 적절한 전술교신(tactical communication) 구사능력도 요구되지만, BFM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능력의 발휘는 제한을 받는다.

BFM 능력배양을 위한 훈련여건은 과거와 동일하게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BFM의 이론과 실제 비행에 고도로 숙련된 교관 조종사가 소수이고 복좌 항공기 활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제반 훈련여건이 불충분하여도 지휘관의 관심과 실천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공중 전투 기동능력은 동일한 자격자라도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조종사를 선정하여 훈련시켜 적정 수의 전담교관을 확보하고, 훈련 중 도출된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학술교육 교안을 보완하여 이론과 실제 비행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투기동은 교관의 시범과 피교육자의 조작 모니터가 가능한 복좌 항공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Double attack 전술 운용에서 편대 구성원 각자의 1 대 1 기동능력이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기동능력 배양은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이다.

둘째 중점훈련을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비행시간과 비행횟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종사 개인 연간 요구량을 월별로 균등 배분하면 과목별 월간 비행횟수가 적기 때문에 비행능력 유지와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어진 비행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투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면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해보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현역 복무 시 우연히 입수된 미공군의 중점 훈련자료를 활용하여 소속 비행대대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장의 승낙과 후원하에 2개월간 훈련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중전투기동은 과목의 특성상 일관성과 계속성이 없으면 기량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난이도가 낮은 기동부터 난이도가 높은 기동까지 단계적으로 집중훈련을 계속함으로써 개인과 부대 전체가 목표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비행기량이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요원이 편조된 편대로 월별로 균등 배분된 횟수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능력을 고려하여 연중 계속 난이도가 낮

은 훈련만을 반복 실시하는 폐단이 있다. 이러한 폐단은 요구량은 충족되어도 훈련성과의 내용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점훈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 훈련 분위기 조성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교안의 재정비, 그리고 현실성 있는 교과과정과 훈련 계획의 작성이다. 대외적으로는 훈련계획의 상급부대 보고와 조종사의 출장/파견,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임무의 타부대 이관 등의 사전조치이다. 훈련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훈련 계획을 사전 작성하여 공시하고, 안전대책과 평가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중전투기동과 관련성이 없는 훈련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기동과 전술에 대한 토론과 편조별 상황별 연구(situation study)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은 훈련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점훈련의 성과는 공중전투기동 기량향상 이외에 많은 부수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훈련기간 중 최대성능(high performance) 기동을 경험하고, 항공기 성능 이해와 항공기 조작에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다른 훈련과목의 기량향상속도가 빨라진다. 무엇보다도 조종사들의 눈빛과 행동에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군의 사기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실감할 수 있다.

셋째, 학술교안의 내실화이다.

비행교범에 기술된 내용은 개념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조작으로 옮기기에는 불충분하다. 기동 단계별 핵심 사항의 각종 제원, 조작방법, 수반되는 현상 및 효과, 고려요소, 공통적인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실제 조작으로 옮기는데 의문점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도해(圖解)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전투기동과 조종불능(out of control) 상태 회복조작은 순간적으로 조우하는 현상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동적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문어체보다는 동적인 구어체 또는 지시적인 용어(directive term)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학술교안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과 저 능력자를 대상으로 기술하여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관리자들은 연구와 노력을 강조하지만 혼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넷째, 지휘관의 관심과 노력이다.

조종사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

력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보다 중요하다. 비행안전 목표는 전투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과 병행하여 달성되어야 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존성 제고를 위한 보약복용

전투 조종사가 출격을 하면 적기를 격추시키거나 지상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부여된 임무이다. 적기와 조우하여 공중교전 시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방어상황(defensive situation)에 처하게 되어 온갖 노력을 다하여도 적기가 계속 후방의 유효사격 범위 내에 머물러 있고 편대원(free fighter)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후 회피기동(last ditching escape)을 실시하여 위험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기동을 실시하면서 적기가 추월(overshoot)하게 되면 공격적인 위치로 전환하고, 기동 후에 적기가 횡적 또는 수직방향으로 분리되어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공간과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적기와 정면접근(head on)을 시도하면서 증속하여 전장을 이탈하여야 한다.

전방의 적기를 격추시키고 자신은 후방의 적기로부터 격추된다면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공격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적기를 격추시키고, 방어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편대를 정비하여 전장을 이탈하여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일당백(一當百)은 어렵다 하여도 일당오(一當五)는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때문에 최종회피기동은 조종사의 생명연장의 보약이며, 기회있을 때마다 연습(服用)하여 에이스(Ace)의 꿈을 키워야 하겠다.

전투 조종사들은 반드시 2~3 종류의 최종 회피 기동을 선정하여 평소에 깊은 연구와 연습을 통하여 유사시 자신있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기동은 일반적인 방어기동과는 다르게 다양한 성능을 이용한 복합적인 기동(high speed, high "G", quick turn and reverse, unpredictable FLT path, full scale rudder, thrust change, drag brace extension)으로 단시간 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조작과 같은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야 한다. 최대 성능으로 정확하게 기동하지 않으면 기동효과(overshoot/separation)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결심시기(timing)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심시기가 지연되어 방어적 상황(defensive situation)이 지속되면 속도(energy)의 상실로 인하여 최대 성능으로 기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기동개념을 에너지 기동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교전 전이나 교전 중은 물론 교전 후에도 고

(high) 에너지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편대장의 에너지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본인은 비행기량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고도와 속도에 크게 제한받지 않으면서 기동효과가 탁월한 ‘-G’ 이탈(escape) 기동과 불규칙기동(jink out) 조작을 추천하고 싶다. 군인은 체력을 더욱 단련하고 보약도 수시로 복용(연습)하여야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공중전술의 전환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전투 조종사의 필수요건인 전투기동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종사의 생명연장 수단인 최후 회피 기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소 연습을 권고하였다. 저고도 침투 적기와의 교전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저고도에서의 전투기동은 현행 훈련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최대 성능기동 중에는 조종불능상태의 진입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본인이 저술한 조종불능 관련 책(out of control 1, 2권)을 참조하여 조종불능상태의 진입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조종사의 개인 전투능력은 편대장의 우수한 전술적용과 지휘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최고의 전투력 배양과 정신무장에 의한 정예공군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마음으로 듣기

창의적인 사람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할 따름이다.

- 미하이 칩센트 미하이 -

비행교육

비행훈련을 맡으면서



14기 사관 김길상

조종사 생활을 막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들의 비행훈련을 맡아서 열정을 쏟아내던 그 시절이 지금은 아름답게 여겨져 회상에 잠겨 본다.

전투대대를 선호하였던 당시에 초등비행 교육대대 대대장으로 부임하는 나의 마음은 사뭇 착잡하였다.

작사 작전처에서 8개월 이상 일을 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 선임 작전장교(TACC SODO)로 동기생으로는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 1년 이상을 근무하여 작전개념 및 작전운영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있다고 여겼기에 전투부대로 돌아가서 전투비행대대장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초등비행 교육대대장으로 발탁된 이유는 그곳 비행대장을 1년 수행한 경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국방장관이셨던 주 장관님이 초등비

행 교육대대는 생도들에게 비전 있는 교육이 요구되니 10전투비행단에서 우수자를 차출하여 비행대대장이나 비행대장을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었다. 대부분 전출과 이동을 싫어했지만 사지로의 출동지시에도 응해야 할 군인으로서 후배들 교육봉사에의 차출을 기피하는 것은 생도시절에 배운 군인정신과는 상반된다고 생각되어 자원했던 비행대장의 경력이 작용되어 교육훈련대대장으로의 보임을 하게 된 것 같다.

“불가항력은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즐겨라”는 고사명언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아야만 하였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사용되고 있는 비행대대구호에 맞게 “처음부터 올바르게” 비행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나 자신부터 다짐했다.

조종사는 공간관리/시간관리에 대한 비행

개념과 인명과 자산관리가 요구되는 안전운 영개념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주체가 되 어야 함으로, 제일 먼저 모든 교육자 및 피교 육자들이 비행개념과 안전 운영개념을 이해 하고 적용하도록 습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 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비행원리, 시스템 (System) 및 작동을 완전 이해시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행장/공역을 이동하며 3 차원을 기동하는 공간관리와 계획된 비행임 무를 시간에 맞추어 수행하도록 속도와 시간 의 개념을 강조하여 시간관리를 하도록 하였 으며, 모든 비행 운영은 비행절차에 의거 수 행되어야 함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한편 비행안전 습성을 키우고자 조작 및 기재취급은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하게 수행 함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신속하게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 순서가 되도록 강조하였다. 기 억보다는 점검표(Checklist)에 의거 먼저 절 차를 확인하고 기재를 눈으로 보면서 점검하 는 실행을 습성화 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행의 기본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생도들에게 직접 전 파 교육하는 것은 대대장보다는 일선교관들 의 몫이 더 크므로 교관들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되었다. 당시 교관구성은

현역 9명, 예비역 선배교수 14명으로 구성되 었었다.

교관의 구성, 운영, 활용도 만만치 않았다. 교관들의 절차표준화를 위하여 평가교수 위 원회를 두어 활용했으며 평가기준도 수립하 였다.

교육과정에서 적성 부적격으로 재분류하 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관/교수는 신체 부 분에서는 분명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하 였으나, 비행기량 면에서는 비행 감이 부족 하다는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초기분류에도, 중간분류에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애매모 호한 표현은 의사 전달 시 학생들에게 무엇 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전달이 잘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용어를 재발췌하였다.

비행이 이루어지는 사고(思考)과정은 상황 인지, 상황판단, 상황처치 순으로 이루어짐 으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상황인지 단계에서는 주요점검 항목 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인지가 안되거나 인지시기가 늦고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 습성 이 덜되어 누락되거나, 아니면 비행에 전념 하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므로 인지상의 문 제가 되는 주의분배 부족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다.

상황판단에서는 상황을 파악한 후 사전에 설정된 판단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

여 처치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상황처리 능력은 처음에는 서툴지만 절차에 의거 정확하게/신속하게/유효적절하게 수행하면 처리능력을 점차 배양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황인지 다음에 상황판단,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기로 통일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대부분 인지력(주의분배력)이 부족하여 비행 부적성으로 판단한다. 중간에서는 판단력이 부족하다/처리능력이 부족하다로 기록하게 하였다.

따라서 신체검사 이후 초등과정에 입과한 자원이라도 반복적인 구토, 비행공포증은 신체로, 상황인지/상황판단/상황조치 부족은 비행자질로, 심리나 정서불안으로 기인되는 엉뚱한 조작은 비행안전 문제로 재분류 대상을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한편 비행개념을 이해하고 안전운영개념을 적용,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비행 1등을 시킨 교관과 학생에게는 후배들의 귀감이 되도록 브리핑실에 명예를 남긴다는 보드판에 교수/교관과 학생의 이름을 등재하여 남도록 하였다.

당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절차에 의거 반복비행을 하면 학생들은 모두가 T-41 항공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판단하여 전원이 단독비행을 수행하고 중등과정으로 가게 하였다.

'82년도 연말비행 수료상황을 회상해 보면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떠오른다. 비행 가능일은 오직 12월 24일, 26일, 27일 3일뿐인데 연말까지 훈련을 수료시켜 중등과정으로 입과시켜야 할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독비행을 완료하였으나 6명은 강한 측풍으로 단독비행훈련이 중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24일에는 반드시 단독비행을 수행해야만 26일에는 평가대비 비행, 27일에는 평가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측풍이 줄어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적 제한과 바람이라는 외부적 비행장애요인,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여건 등으로 일부 교수님들은 6명에 대해서는 단독비행을 동승비행으로 대체하고, 26일, 27일의 기존 일정대로 평가비행을 진행시키자는 건의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2시간을 대기시킨 후 16:00경 측풍제한치 근처에서 잔류 6명에 대한 단독비행을 완료했을 때가 가장 인상에 남는 비행운영이었다. 늦게까지 기다렸다 단독비행을 수행함으로써 잔류요원들은 물론 이려니와 이미 단독비행을 완료했었던 요원들까지도 비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긴장된 비행을 무사히 끝내고 우리 모두 해내었다는 자부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말외출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환호하였던 것이다.

사관학교 졸업 전에 조종총장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새로 바뀐 교과과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2년에 걸쳐 입과 할 많은 자원들을 그해는 1년 내에 수료시키고자 한여름 띄약 별에서 외부온도는 섭씨 35°이지만 조종석 및 피에스피(PSP) 주기장은 55°나 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교육을 담당하셨던 선후배 교수/교관님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주신 정비, 통신 등 각 후방 지원 요원들에게 지금까지도 늘 고맙게 생각

하고 있다.

그리고 대대의 전 요원들과 지원요원들이 합심하여 2년간 250여 명이나 수료시키고 기간 중 9,768시간의 무사고비행 기록을 포함하여 총 16,300여 시간의 비행대대의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성과는 그 시절 땀을 함께 흘린 우리 모두의 자랑일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운 옛 전우들의 모습이 무척 보고 싶다.

마음으로 듣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변명하는 사람과 결과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변명형 인간은 일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찾지만
 결과형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

- 엘런코헨 -

방공포

준비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



38기 사관 이영권

방공포병부대는 한여름의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일 무렵이면, 1년 동안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대공포 사격대회에 참가한다. 대공포 사격대회는 방공포병사령부에 하 모든 포대를 비롯하여 각 비행단과 관제기지에 배치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내의 모든 방공포대가 사격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대공포 사격대회는 개인훈련, 체제훈련, 연합/합동훈련 등 매우 다양한 교육훈련 중에서도 해당 부대의 주 임무수행분야에 있어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종합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중요한 훈련이다. 따라서 해마다 참가 부대 모두는 선의의 경쟁상대가 되어, 표적기에 대하여 1발이라도 더 명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대는 사격대회를 준비하면서 목표를 20:1(20발 중 1발 명중)로 설정하여 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보통 발칸의 합격 명중률은 100:1(100발 중 1발 명중)인데, 방

공포병부대의 평균 명중률은 30:1(30발 중 1발 명중)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높은 목표인 것이다.

사격을 준비하는 기간은 성하(盛夏)의 시기인 7월과 8월로 따가운 피약별에 숨이 막히는 뜨거운 공기가 훈련을 방해한다. 심지어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아니 그늘에서조차도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방공포병 장병들은 오직 사격대회 하나만을 바라보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대공포 사격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는 본격적인 사격훈련에 접어들기 전에 장비운용에 대한 준비단계이다. 사격을 준비하는 이 기간 내내 조준감과 포신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조준감사, 탄약을 장전하는 법, 장비 이동 및 설치법, 비상시 응급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숙달시킨다.

두 번째는 체력단련이다. 사격대회를 위한 준비에 체력단련이 웬 말이나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체력단련도 사격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준비사항이다. 이유는 준비 기간 동안 탈진 등 안전사고 없이 한여름을 넘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실제 사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적훈련이다. 주변 산등성이 추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부대별로 준비된 추적 훈련 장치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사격일이 임박할수록 축사포 사격 등으로 사격장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준비한다. 참고로 축사포 사격은 발칸이 전기에 의해 사격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M-60 공포탄으로 사격하는 것으로 청각적 효과를 통하여 신입병사들에게 사격장에서의 긴장감을 사전에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추적훈련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군장검사를 받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으로 사격장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사격에 있어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가입교시 처음으로 지상사격을 하는 날, 사격장으로 향하면서 1시

간 이상 구보를 했고, 사격장 안에서는 잡념을 없애기 위하여 PT체조를 셀 수 없이 하였다. 그런 이후 모든 정신을 집중하도록 사격장 안전수칙을 낭독하고 난 후에야 사격을 할 수 있었다. 그때는 구보도, PT체조도, 군기교육도 힘들었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면 왜 그러한 교육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실제로 대공사격을 진행하고 통제하다 보면 많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상 사격구역 외곽에 있던 선박이 급속도로 이동하여 사격구역 내로 진입하는 경우, 사격 중에 총열이 파열되는 경우, 탄약 장약의 이상으로 탄약이 지연 발사되는 경우, 탄약이 총열에 끼어서 발사되지 않는 경우 등 평소 부대에서 실제 항공기나 교육용 무인표적기(RC-MAT : Remote Control Miniature Aerial Target)를 이용하여 추적 및 모의 사격연습을 하는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고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에 발생한 비상상황 중 가장 큰 사례는 ○○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사격할 때였다. 사격 도중에 총열이 파열되면서 찢어진 파편 일부가 사격 순서를 기다리던 대기사수의 코를 스치고 지나간 것 -다행히 큰 상처가 아니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부대생활을 하고 있다. -이다.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경우로 가정해 보았다. 총열이 과열되어서 폭발된 것인지, 신행탄으로 사격을 했는데 탄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사격통제관 전원이 모여 토의하였고, 현장을 확인점검하였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아주 의외의 부분에 있었다. 바로 발칸의 총열과 조준기의 조준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준감사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부수기구인 굴대몽치를 조준감사 후 총열에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사격한 것이다. 굴대몽치는 총열 끝에 끼워서 사용하는 기구로 조준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혹시라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리본까지 매어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굴대몽치에 매어 달도록 되어 있는 리본이 사격준비 중 끊어져버린 것이다. 결국 식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없어져버렸고, 절차상 사격 전에 사격부대 선임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 사항도 누락되었다. 확인 점검의 누락으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항상 교육받고 있지만 너무도 당연히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 오히려 더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대학농구의 명감독 '존 와든'이라는 사람의 말이 생각난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

에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신발 끈을 묶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선수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사격장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점검표(Checklist)에 의한 작업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군인은 ‘오늘의 땀 한 방울이 내일의 피 한 방울을 아낄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실전과 같이 교육훈련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전장에 나갈 우리의 전우가 다치게 되어 그만큼의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훈련은 가장 안전한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절차를 보완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되뇌어 본다.

“준비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 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I 한국 공군력 발전을 위한 제언



16기 사관 최명상

프랑스의 국제정치학자 뒤로젤(Jean Baptiste Duroselle)은 ‘국제관계의 본질은 전쟁’으로 정의했다. 역사적으로 국제질서는 전쟁에 따라 변화해왔고, 군(軍)의 형과 구조는 무기체계의 발달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

탈냉전체제 속에서 아직도 냉전의 빙하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비대칭 위협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엄청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깨져버렸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국국방 전반에 걸친

개혁과 자강(自強)을 위한 공군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이러한 증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한국군 구조와 공군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3군 균형의 합동군 체제와 항공우주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전쟁양상의 변화와 공군력 역할의 확대

국제질서는 한국의 안보국방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의 국제체제에서 세계적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이 세계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구상 중에 발생한 것이 걸프전이다.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사태와 코소보 전이 발생했다.

1992년 미 행정부의 ‘한국방어는 한국주도’라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의거 주한미군 7,000명이 철수하였으나 1994년 북한 핵문제로 EASI 2단계 철수가 연기되고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었다.

2001년 취임한 미국의 현재 대통령 부시(George W. Bush)는 취임 초부터 ‘레이건 독트린(Reagan Doctrine)’의 ‘대소우위군 사정책(對蘇優位軍事政策)’이 자유세계의 결속과 소련의 붕괴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신념으로 레이건의 전략방위계획(SDI)과 이에 버금가는 미사일방위계획(MD)을 펼치려 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우방국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쳤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로 미 본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국제테러조직의 발본색원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고 강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21세기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국제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3,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고 2008년까지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국방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국제질서를 맞이한 것이다. 자강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증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전쟁양상의 변화는 공군력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결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항공 우주력(Aerospace Power)의 결정적 역할이 더욱더 입증되었다. 단기간에 적은 희생과 피해로 승리하는 신속주도전(RDO), 효과기반전(EBO), 네트워크전(NCW)의 현대전 수행개념이 확립되었다.

또한 합동군 체제에 의한 육·해·공군 3군 간의 고도의 합동성이 승리의 관건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은 그 이전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과는 판이한 전쟁 형태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전의 특징은 항공우주력에 의한 전략적 주도권 장악이다. 또한 원거리 정밀 항공우주력(Long Range Precision Aerospace Power)과 장거리 미사일 운용이다. 항공기의 경우 수백 km의 작전반경에서 공산오차(CEP) 10ft 이내로 정밀폭격을 가했으며,

미군이 사용한 순항미사일은 1,500~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미군이 사용한 항공정밀유도무기는 걸프전쟁 당시 전체 항공무기의 7~9% 수준이었으나 최근 이라크전의 경우는 69%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현대전쟁은 새로운 전쟁개념과 양상으로 변화하고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전 및 통일한국을 위한 국방 개혁과 공군력 발전방안

한국군 병력 규모 개혁방안은 미래전과 통일기에 대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나라마다 자원과 국방비의 제한으로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공군도 통일대비 적정 공군 상비 병력을 산출한바 있다.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 2003~2004에 수록된 115개국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기법으로 육·해·공군의 구성비율을 도출하였다. 군별 비율과 밀접한 관련요소 GDP와 1인당 GDP, 국방비와 병력 1인당 국방비, 지리적 여건, 그리고 국토면적 등을 고려한 결과 통일이 유사한 주요 국가들의 평균 공군비율이 19.7%이다. 또한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한 '국민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군별 비율을 종속변수

로 하여 공군비율을 도출한 결과 19.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 상비 병력을 37.5만 명으로 할 경우 공군은 7.4만 명이 되어야 한다. 한국군도 선진국과 같이 육·해·공군의 구성비가 60%:20%:20%가 되어야 한다. 또한 '818 정신' 대로 육·해·공군 장군수의 구성비율을 2:1:1 원칙을 살려 육·해·공군의 장군수를 각각 50%:25%:25%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공군에 전문성과 숙달성이 요구되는 간부들의 구성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육사·공사 출신들의 장군 진급률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장교정원 대비 장군비율을 보면 공군이 제일 열악한 상태이다. 최근 공군의 고급장교 정원부족으로 고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조종사들이 중령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실례가 있어 국고낭비는 물론 조종사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약 60~7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조종사는 공군 전투력 발휘의 주 수단임을 고려 시 직업성 보장을 위해 적정 계급까지 진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육사출신 장군 진급률이 50~52%에 비해 공사 출신은 12~14%에 불과하다.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진출률이 평준화되어야 한다.

한국 군 구조는 미래지향적인 군 의사결정기구로의 개혁과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할 전략공군으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먼저 국방부 및 합참의 군(軍) 의사결정기구가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더불어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전쟁억제와 전승의 군사전략과 군비경쟁 군사력 건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와 기구의 구성은 육·해·공군 1:1:1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방개혁 2020에는 국방부 본부 구성을 육·해·공군 2:1:1로 되어 있으나 개혁차원에서 미흡하다. 방위사업청 창설시 육·해·공 장교가 동수 동 계급 1:1:1로 구성되었듯이 국방부의 구성인원은 반드시 3군 동수 동 계급 1:1:1 원칙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군의 전력증강사업을 결정하는 '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나 '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인원도 1:1:1 원칙이 지켜져야 합리적,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합참도 운영 면에서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순환제에 의해 보임토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합참 보직을 육·해·공군

1:1:1 기준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한국공군은 전략공군으로의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공군은 적의 비대칭 위협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공군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상군작전사령관과 동급으로 공군작전사령관의 지휘부대를 격상하고 전시 한미연합사예하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공군의 전쟁기획 및 계획업무가 활성화되고 전쟁수행능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공군은 작전사령부의 과도한 지휘 폭을 줄이고 기능배분과 역할분담을 위하여 기능사령부의 창설이 요구된다.

적 정보 수집능력과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표적타격전력강화를 위한 공군전략정보사령부(ASIC : Air Strategic & Intelligence Command)와 우주무기체계를 포함한 공군방공우주사령부(ADSC : Air Defense & Space Command), 그리고 공군의 전략적 공수능력강화와 국위선양을 위한 공군기동사령부(AMC : Air Mobility Command)의 창설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군기동사령부의 확충은 북한 핵실험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여졌으며 향후 공군구성군사령부인 주한미군의 7공군사령부가 미국의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AFNEA)로 변경과 연계해서 선행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지대공 미사일(SAM-X)은 한국 유일의 유도탄운영 경험이 있는 공군방공포병사령부가 맡아야 한다. 공군의 숙원사업인 제주공군기지 건설도 이번기회에 추진되어야 한다. 3군 균등 발전을 위해 각 군의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의 기능 및 인원이 표준화 편성되어야 한다. 연합/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해·공군대학 교육을 합참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요구된다.

각 군 대학 및 사관학교의 교관편성 및 계급구조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공사의 대령교관 정원을 육사와 같이 평준화하고 교수부장도 육사와 동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공군대학총장도 동 기능 동 계급 부여원칙에 의거 육군대학총장과 동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수부장도 장관급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속 교관 및 학생장교들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교육인원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대령급 대상의 공군전쟁기획과 공군전략연구를 위한 공군전쟁대학원(AWC)과정이 부활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군진급을 앞둔 엘리트 장교들이 꼭 이수하여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군의 핵심전투단위는 전투비행단이다. 공군의 전투비행단장을 육군 사단장과 동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20에서는 지휘계선의 단축을 명분으로 비행전대장을 없앴으나

오히려 비행대대의 항공기 대수와 조종사를 확충하여 비행전대로 승격시켜 보다 작전효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항공우주전력 증강이 절실하다.

한국군 전력구조는 21세기형 첨단정보·과학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구성체계로 전장감시와 조기경보체제(AWACS), 지휘통제체제(C4I)기동/정밀타격체제(PGM), 합동공격무기체제(JDAM), 그리고 방호체계를 갖추도록 전략증강 투자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도입 시기도 가용예산과 연계하여 법제화되어야 한다.

공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F-X, E-X, Air Tanker, 유도탄, 우주무기체제 등의 확보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더욱 시급하다. 공군 전투기 전력의 적정규모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국의 전투기 대수 능력뿐만 아니라 협력적 자주국방과 전쟁수행에 필요한 항공임무 소요 등에 고려할 때 High-Low급 혼합 최소 500대 수준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초전 3일 간 프리 아이티오(Pre-ITO) 수행전력에 필요한 최소전력이다. 이제 항공우주력은 공군력에 국한되지 않는 합동전력이다. 항공기의 고가화로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평시 전쟁 억제력과 핵시설에 대한 선제능력 확보 및 전시 적의 전략적

중심(Enemy Strategic Center of Gravity)의 무력화와 지상군 작전과 해상작전지원을 위해서는 부득이 전투기 전력의 적정 규모유지가 요구된다.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항공우주력 증강으로 더욱 절실하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전쟁양상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한국의 국방개혁을 통한 군사문제 전반에 걸친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는 냉전의 빙하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보였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로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생존과 사활적 국익을 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획기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국군통수권자의 초지일관한 역사적 결단과 과감한 개혁실천의지가 절실하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3군 균형발전이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군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 반드시 승리하는 합동군체제 강화를 위한 애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군은 소아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완벽한 국방태세를 위해서는 3군의 균형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적 군 구조와 전략전술개발, 그리고 자강을 위한 공군력, 전략적 항공우주력(Strategic Aerospace Power)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군이 설득하고 선도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총장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전략공군으로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현역은 물론 예비역도 혼연일체가 되어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참군인의 선택이다.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엄청난 안보위협 속에서 전략적 항공우주력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II 위기의 고구려사



14기 사관 이건일

요즘 국내 TV방송사들은 고구려사와 관련된 역사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시청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주몽’이 ‘연개소문’이나 ‘대조영’보다 인기를 더해가자 연장 방영까지 고려되고 있다 한다. TV 사극의 주제가 온통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실은 고구려를 강탈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의 고대사를 지키기 위한 계도적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오래전부터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하면서 고구려사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형성된 중화민족 개념에 부합되도록 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해 오면서 그것을 학술문제인 동시에 매우

중차대한 정치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사의 관학화(官學化)’로 향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의 초보적 결과도 이미 예견되었듯이 고구려사가 한국역사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한중간에 새로운 역사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국의 역사가 엄연한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고구려국은 이름이 추모(鄒牟)이고 호가 동명성왕(東明聖王)인 주몽(朱蒙)에 의해 BC 37년(漢元帝 建昭 2년) 오늘날의 요령성(遼寧省) 환인현성(桓仁縣城) 부근으로서 흘승골성(紇升骨城)이라고 하는 졸본천(卒本川)을 수도로 하여 건립되었다. AD 3년(漢平帝 元始 3년)에는 부여(夫余)국의 침략을 피하고 지리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읍을 오늘날의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인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겼으며, 그 후 AD 427년 장수왕(長壽王)이 부친인 광개토태왕

(廣開土大王)이 넓혀 놓은 강역을 공고히 하면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라와 백제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읍을 평양(平壤)으로 옮겼다. 그리고 고구려는 후일 당태종(唐太宗) 총장(總章) 원년(元年)인 AD 668년 라당(羅唐)연합군에 의해 멸망되면서 705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일사양용(一史兩用) 사관에 근거하여 고구려가 427년 이전 국내성(國內城)을 통치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을 때까지를 중국 영토 내의 한 소수민족이 건립한 국가로, 그리고 427년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이후는 인접국가의 역사로 취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427년 이전의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이고 그 이후는 한국사에 속한다고 하면서 압록강 이북에서 요수(遼水) 이동의 영토가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일원적 다민족 구조의 '중화민족사관'이라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그동안 중국의 역사학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일사양용사관마저 부정하면서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들은 진조(秦朝) 이래 중국은 이미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민족과 강역은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서 중국의 역사에서 전통적 강역 내의 민족은 모두 중국민족에 속한다는 이른바 중화민족사관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조차 아직도 '현재의 중국 강역(疆域)'을 어느 시기의 강역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쟁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의 중국 영토' 범위를 청조가 완전히 통일한 이후부터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기 이전의 청조의 강역, 즉 18세기 50년대부터 19세기 40년대 아편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시기의 중국 영토를 '역사적 시기의 중국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중화민족사관'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근거하여 '역사상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중화민족사관'은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물론이고 과거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였던 나라의 역사도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이며, 이들 소수민족의 역사도 모두 중국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른바 중화민족사관에 근거하여 ① 고구려족의 기원 ② 고구려국의

강역(疆域)과 역사 ③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성격에 기초한 고구려국의 성격 ④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의 성격 ⑤ 고구려 유민의 거취에 따른 고구려사의 연속성 ⑥ 고려와 고구려 간의 역사적 계승성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쟁점 1 : 고구려족의 족원(族源). 동북공정은 고구려족의 조상이 예맥(濊貊)족이라는 한국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엉뚱한 고이(高夷)설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서·왕망전(漢書·王莽傳)>과 <후한서·고구려전(後漢書·高句麗傳)> 및 <삼국지·고구려전(三國志·高句麗傳)>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고구려족의 족원을 요동지역과 압록강 양안에 거주하였던 예맥족으로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었다. 북한 <朝鮮全史> 역시 “고구려 국가를 건립한 기본 주민은 고대 조선족 속의 일부인 맥족(貊族)이며, 그들은 BC 8세기 고조선 변경의 혼강(渾江) 유역과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생활하였고, 일찍이 이 지역에는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졸본부여(卒本夫余)가 있었으며, 졸본부여가 조선의 옛 땅에 위치한 소국이었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세워진 지역에 이미 적지 않은 조선인이 생활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족의 족원을 예맥족으로 보고 있는 한국 역사학자들은, 첫째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왔는데 부여족이 예맥족이었고, 둘째 고구려와의 전쟁과 교류과정에서 출현한 민족이 거의 예맥족이었으며, 셋째 대부분의 사서 속에 고구려인이 예맥족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주조(周朝)의 역사서인 <일주서(逸周書)>의 ‘왕회 편(王會篇)’에 나오는 고이(高夷)가 고구려족의 족원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고이가 오늘날의 길림성 송화 강 유역에 거주하였던 예인(穢人), 대동강 유역에 거주하였던 양이(良夷), 그리고 요령 성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였던 발인(發人)과 함께 나란히 주나라의 신속으로서 고구려족의 족원(族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이를 고신 씨(高辛氏)와 더불어 상인(商人)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설상의 고양 씨(高陽氏) 후예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쟁점 2 : 고구려국의 강역과 역사. 그동안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고구려 영토의 계승문제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영역을 ‘고조선’의 옛 땅, 즉 한조(漢朝)의 현토군(玄菟郡)과 진번군(眞番郡)의 관할지역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고구려를 오늘날의 한반도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제후국'으로 보며 그 영역도 고조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병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한 무제(漢武帝)가 BC 108년(元封 3년) 출병하여 위씨조선(衛氏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낙랑(樂浪), 임둔(臨屯), 현토(玄菟), 진번(真番) 등 4개 군(郡)을 설치하였다” <후한서·동이전(後漢書·東夷傳)>, “현토 군에 고구려, 상은대(上殷台), 서개마(西蓋馬) 등 3개 현(縣)을 설치하였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영토 내에 건립된 소수민족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구려가 현토 군이 설치된 이후 한조(漢朝)의 관할하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견노(涓奴), 절노(絶奴), 순노(順奴), 관노(灌奴), 계루(桂婁) 등의 5대 부락을 형성하였고, 바로 이 시기에 부여족의 주몽(朱蒙)이 오이(烏伊), 마리(摩離), 섬부(陟父)족 등을 이끌고 고구려족이 대대로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진입하였으며, 계루부락을 시작으로 하여 차례로 4개 부락을 정복하고 국가를 건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통치지역이 고구려인의 활동 중심이었고 백성들도 한인(漢人)이나 부여인 보다는 고구려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국명으로 삼았고, 주몽이 부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국명을 졸본부여국(卒本夫余國)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공정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낙랑이(樂浪夷)라고도 호칭되는 양이(良夷)를 고조선의 선인으로, 그리고 고이를 고구려의 선인으로 보면서 고구려족의 민족과 고구려국의 강역을 모두 한족(漢族)과 한조(漢朝)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은 고구려국이 한조(漢朝)보다 훨씬 이전인 주조에 이미 중국의 영토 안에 있었다는 논거를 만들어 고구려국을 중국의 신속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상조(商朝)가 주무왕(周武王)에 의해 멸망하자 상조의 신하였던 기자(箕子)가 주조(周朝)를 떠나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주무왕은 오히려 조선 땅을 기자에게 하사하고 제후로 봉하여 기씨조선(箕氏朝鮮)을 제후국으로 인정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고구려인들의 활동지역이었던 요동이 주조의 진(秦) 이래 줄곧 중원왕조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동북공정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고이(高夷) 설을 내세우면서 고구려족의 족원은 물론이고 고구려국의 영토까지를 중국의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고구려가 비록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국시기의 연국(燕國)

영토 내에 건립되었고, 그 후 한대(漢代)의 중국 영토였던 현토군(玄菟郡) 내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결코 독립국가가 될 수 없었으며 단지 서한(西漢) 중앙정부에 예속된 소수 민족의 지방정권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화민족사관’에 의하면 고구려의 영토를 포함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은 자고이래로 중국의 영토에 속하게 된다. 전국시기에 이미 연국(燕國)이 청천강 이북지역의 맥(貊)을 합병하였을 때 고이의 옛 땅 역시 연국에 의해 요동군의 관할구역으로 흡수되었고, 후일 그 땅은 서한의 소제 원풍년에 이르러 요동군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나갔으며, 그곳에 다시 현토군을 설치하였는데 바로 그곳이 제2 현토군(玄菟郡)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제2 현토군의 관할구역에 고고이(古高夷)와 고맥국(古貊國)의 옛 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지역은 주조(周朝)부터 중국의 영토에 속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도적 역사학자들은 일사양용사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화민족사관’에 근거하여 평양이 한조의 낙랑군 경내에 존재했으므로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사도 당연히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쟁점 3 : 조공과 책봉의 성격에 기초한 고구려국의 성격. 과거의 중화체제 속에서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 중국과 주변 민족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고구려가 한조(漢朝)부터 시작하여 중원왕조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군신관계의 철저한 제후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공정을 선도하고 있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중화체제 속에서는 결코 독립국가가 존재할 수 없었으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종주국과 번속(蕃俗)국의 관계였다는 전제하에 조공과 책봉을 중원왕조와 주변 국가와의 군신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고구려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동아시아나 또는 중국과 주변국간에 그 어떠한 현대적 의미의 국제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질서의 기본 틀은 어디까지나 중화체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당시의 조공과 책봉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조공과 책봉이 중원왕조와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규정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당시의 중화체제 속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의문들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쟁점 4 :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의 성격. 동북공정은 수·당의 대고구려 70년 전쟁(598~668)을 침략이 아닌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조(隋朝)가 38년의 통치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이 모두 침략전쟁이 아니라 중앙정권이 지방정권의 할거를 제압하기 위해 일으킨 통일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첫째 고구려국이 원래 중국의 고대 영토 내에서 건립되었고, 둘째 고구려족의 족원이 고이족의 후예인 한족이었으며, 셋째 고구려가 수·당 시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원왕조와 신속(臣屬)관계를 유지해 왔고, 넷째 중원왕조에 조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책봉을 받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조의 고구려 침공을 국가간의 침략전쟁이 아닌 대내적인 통일전쟁 내지는 징벌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수·당 이후 동아시아의 신라와 백제, 그리고 후일의 고려와 조선은 고대 중화체제에 속한 일원으로서 중원왕조와 조공과 책봉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중원왕조의 신속정권이 아닌 분명한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고구려를

제외하곤 한반도의 모든 왕조가 중국의 역대 중원왕조를 향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기다렸지만 그것은 결코 주종관계가 아닌 소국과 대국 또는 번속(蕃俗)국과 중주국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 5 : 고구려 유민의 거취에 따른 고구려사의 연속성. 동북공정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 유민도 한족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69만호의 주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족은 약 15만호 정도의 7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서 중원의 각지로 들어간 30여만 명의 고구려인은 한족(漢族)으로 동화되었고, 둘째로 들어간 1만 여명의 고구려인도 요서(遼西)로 옮겨 한족에 동화되었으며, 10여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신라로도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고구려인은 속말말갈(粟末靺鞨)과 백산말갈(白山靺鞨)로 들어갔는데, 이들의 후예인 속말말갈 부장의 아들인 대조영(大祚榮)이 698년 목단강(牡丹江) 유역의 동모산(東牟山)에 후일 발해국(渤海國)으로 호칭되었던 진국(震國)을 건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6 : 고구려와 고려 간의 역사적 계승성.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고려 간의 역사적 계승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고려와 고구려를 그 어떠한 혈연관계나 문화적 계승성도 존재하지 않는 전혀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다. 이들은 왕씨(王氏)의 고려가 고씨(高氏) 고려의 옛 땅이 아닌 신라의 옛 땅에 건립되었고, 왕씨 고려의 민족도 고구려인보다는 신라인, 백제인, 그리고 한인(漢人)의 후예들로 구성되었으며, 왕씨가 원래 낙랑의 한(漢)나라 성(姓)이었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와 고려 간에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왕씨 고려는 조선 역사상의 국가로서 오늘날 한민족(韓民族)의 선인에 의해 건립된 국가이지만 고씨 고려(고구려)는 중국 역사상의 국가로서 오늘날의 중국의 각 민족의 선인들에 의해 건립된 국가라고 들먹이면서 '고구려'가 한국사인 고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정치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1단계 작업인 학술연구를 거의 끝

내고 제2단계로서 고구려국의 사적을 부정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일 수는 없다. 중국은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정부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자신들의 막강한 정치력, 외교력, 국방력, 그리고 경제력을 등에 업고 국제무대에서 고구려가 중국역사 속의 한 지방정권이었음을 알리고 인정받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중국에 비해 고구려사를 지키려는 관심과 의지는 물론이고 연구를 위한 조직이나 자금의 규모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역사적 고증이나 학문적 접근도 없이 흥미위주로 엮어가는 극작가들의 TV드라마 횡포에 고구려사가 두 번 죽어가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동북공정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고구려사를 지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학문적 연구와 행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범국민적 역사 지키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공군 핵심가치』 선정 및 구현



25기 사관 심우섭

최근 수년간 변화의 물결 가운데, 모든 조직들은 생존적인 차원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화, 무한경쟁, 윤리성 강조 등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선진기업과 공공조직들은 핵심가치를 경영의 요체로 인식하고, 발굴 및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 공군도 '99년은 군사혁신(RMA) 주요과업으로 공군비전 정립과 핵심가치 발견을 추진하여, 공군비전은 '공중과 우주, 그리고 정보영역을 이용한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으로 확정하였으나, 핵심가치는 조직의 공감대 부족으로 기초연구에 멈추었다.

다행히 금년 1월 27일에 김성일 참모총장님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군과 공군인들 속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극대화하여 공군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따라 공군전투발전단은 본인을 팀장으로, 각 신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 상근 및 비상근 각 7명의 팀원으로 '공군핵심가치 선정팀'을 운영하였다.

선정팀은 우선 핵심가치를 '공군인으로서 최선이라 생각하는 윤리적 원칙 또는 공통가치 및 행동 판단 기준'으로 정의하고, 이어서 2월부터 8월 말까지 7개월간의 체계적인 연구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회의 등을 거쳐 '공군 핵심가치 선정 및 구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가치 왜 중요한가?

공군 핵심가치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와 혼돈시대에 우리를 지탱하는 정신적 주춧돌이다. 둘째 공군 문화의 중심으로서 공군인의 소속감, 상호신뢰 및 정체성을 강화시켜 준다. 셋째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윤리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인식시켜 주며, 공군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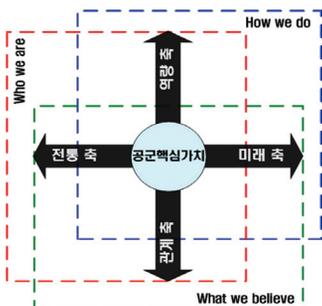
그 동안 핵심가치와 연관시켜 '97년 3월 참신한 공군문화 구현', '98년 12월 '정예공군인 육성', '00년 11월 '행동하는 선진공군문화' 등 여러 차례의 연구가 선행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주로 물질문화와 제도문화에 치중하였고, 실제로 조직문화의 구심점이 되는 본원적 가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리더급의 지속적인 추진노력과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부재로 그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비윤리적 사고가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각급부대의 윤리 및 가치교육 내용도 양적인 성과에 치중함으로써, '공군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못하고 있다.

핵심가치, 어떻게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선정팀은 핵심가치 선정에 앞서, 핵심가치의 체계정립 및 이론적인 구조(structure)를 만들었다. 핵심가치는 기존의 사명, 비전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구성원들의 신념이며, 원칙, 그리고 잠재역량인 핵심가치를 통해서, 비전(조직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과 사명(조직의 존재이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개념의 정의를 구분하자면 윌슨(Wilson)의 포괄적 정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전은 미래의 사업의 형태를 묘사하며 다양한 전략과 특정 목적(goal)을 구체화 시키고, 사명은 사업의 기본 취지를 나타내며, 핵심가치는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강화시킨다(Wilson, *Realizing the power of strategic vision*, 1992).



- 전통 축 : 공군의 독립, 전통 및 존재이유에 대한 해답
- 미래 축 : 공군의 비전, 목표를 구현하는 원동력
- 역량 축 : 공군의 지속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
- 관계 축 : 인간관계/ 업무 속에서 협력과 시너지 추구



선정팀은 각종 문헌들과 다양한 조직들의 상황을 연구하여, 공군의 핵심가치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요소를 종합한 핵심가치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공군 핵심가치 구조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축은 '전통, 미래, 역량,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핵심가치는 각 축을 대칭으로 하여 사분면에 위치하게 된다.

선정팀은 핵심가치를 발견하는데, 하향식 접근(process A)과 상향식 접근(process B)의 2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했다.

하향식 접근에서는 핵심가치 선정팀과 몇 개의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워크숍을 거쳐 '도전, 전문성, 존중, 헌신'이 선정되었으며, 상향식 접근에서는 모든 공군인(병사포함), 공군 예비역 및 일반국민들의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팀워크, 전문성, 신뢰, 책임'이 선정되었다. 특별히, 설문에는 전 공군의(병사 포함) 30% 이상이 참여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며, '팀워크'는 모든 특기, 계급을 불문하고 가장 높이 평가된 가치였다. 한편, 두 개의 결과에 대한 비교와 공통된 대의를 찾기 위해 팀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으며, 공군의 특성과 핵심가치 구조를 고려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는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로 최종 압축되었고, 8월 말 공군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인 정책회의 의결과 참모총장 결재로써, 공군 핵심가치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핵심가치의 정의와 심벌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핵심가치 정의 및 심벌]

구분	정의	심벌
도전	-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Challenge
헌신	- 우리 조국과 공군을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세	 Commitment
전문성	- 맡겨진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 풍부한 지식·경험·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Professionalism
팀워크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하는 자세	 Teamwork



그리고 전문가들과 구성원들의 공모 등을 통해 진술형태(statements)를 기본형과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다. 기본형은 네 가지의 가치만 기술하고 서술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핵심가치 진술 형태]

공군 핵심가치 진술(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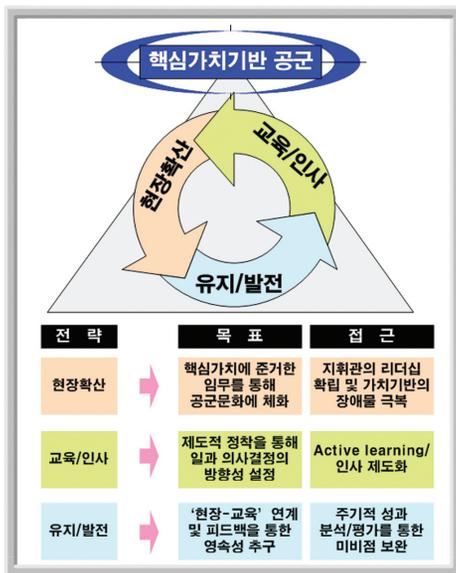
도 전, 우리의 정신이다. (Challenge, Our Spirit)	전 문 성, 우리의 자존심이다. (Professionalism, Our Pride)
헌 신, 우리의 마음이다. (Commitment, Our Mind)	팀 워 크, 우리의 경쟁력이다. (Teamwork, Our Strength)

핵심가치, 어떻게 구현하는가?

공군 핵심가치 구현전략은 핵심가치를 '제도화' 및 '행동화' 하여, 핵심가치 기반의 공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며, 현장확산/교육·인사/유지·발전의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인 현장확산은 전 공군인의 공감대 형성과정이며, 2단계인 교육·인사는 핵심 가치의 제도

적 연계이다. 3단계는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의 전략은 독립적인 전략이 아니며, 각 전략들이 적절하게 섞여 운영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가치 구현전략]



현재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이러한 전략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전략별 세부 과업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공군본부를 선두로 하여 전대급 이상 부대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이 진행되었으며, 국방일보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핵심가치가 모든 공군인들의 일과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위하여 인사근무평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군 내 각종 문서 및 간행물에 핵심가치 문구가 반영되고 있으며, 모든 공군인들이 핵심가치의 의의와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군 핵심가치 지침서가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전장병이 공군의 가치와 친숙해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한 온라인(On-Line) 토론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될 것이며 공군 핵심가치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각 가치별 시상상을 통해 공군의 가치를 잘 구현한 개인 및 단체를 매년 선발하여 핵심가치 구현의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현전략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군 핵심가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계획 및 운영을 주도할 것이며 완료된 세부과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작용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공군 핵심가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며...

사회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공군도 핵심가치 정립을 시도하여 공군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사건이 아니며 공군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군 핵심가치는 모든 공군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깊이 체화된 신조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공군인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치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공군인들이 핵심가치를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현역 장병뿐 아니라 공군을 거쳐 간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선배들의 가치구현이 살아있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 핵심가치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공군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을 기대한다.

마음으로 듣기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쉬운 일을 물었을 때
그리스 천문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 디오게네스. 그리스 철학자 -

자유로이 하늘을 날았으므로



27기 사관 임종춘

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았으므로
 이제 한 마리 새가 부럽지않네
 궁지와 좌절
 자부심과 고통
 자만과 겸허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하늘에서 나는 행복하고 고독했었네

어느 뭉게 구름의 상공에서
 天神의 손길을 느낀 적도 있었네
 봄날 햇살의 따사로움같이
 내 조종석을 감싸고 들어와

계기판을 만져보며 조종간을 만져보며
 어깨와 목덜미를 다정히 쓸고는
 가상 지평선 저 쪽으로 멀어져갔네

먼 도회의 불빛이
 보석처럼 누어가던 야간 비행에서
 나는 天神의 손길을 생각했고
 비구름 뚫던 폭우속의 비행에서
 나는 天神의 시험을 생각했네

땀에 젖어 마침내 발을 디딘
 人間의 大地여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차고
 시간은 감동으로 수 놓았구나
 한 조각 구름조차 사사롭지 않으니
 푸른 마음 활짝 열고 또 하늘로 가네

아, 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았으므로
 진실로 한 마리 새가 부럽지않네



사랑방 골프 이야기



14기 사관 정병호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은 골프를 재미있는 운동이라고들 말한다. 더욱이 친한 벗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눈다는 사실이 그 맛을 더해주고 있다.

이 글을 쓰면서 33년 전 골프에 입문했을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고마우신 선배님들, 그리고 요즈음 프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글을 쓰기가 몹시 망설여진다.

그러나 최근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면서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읽었던 기본적인 잊기 쉬운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에게 알맞은 기량유지법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늘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게 된다. 사람마다 운동 능력과 특성이 각기 다르기도 하고, 또한 나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평소 연습을 자주하여 자신의 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필드에 나갔을 때 자기의 스코어를 낼 수 있는 스타일을 하이 메인テナンス(High-maintenance)라고 하며, 비교적 적은 양의 연습을 하여도 평소의 기량을 빨리 찾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타일의 골퍼를 로우 메인テナンス(Low-maintenance)라고 한다.

골프를 즐기는 아마추어로서 이제 연령이 점차 높아져 가는 분들에게는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하는 연습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여러 가지를 한 번의 연습을 통해 감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짧은 거리를 목표로 하되 리듬, 템포, 타이밍, 얼



라인먼트, 작은 근육의 사용요령, 다운스윙의 유연성, 정확한 타격, 의도한 방향으로의 팔로드로와 피니쉬 등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볼 100개 정도로 50미터 어프로치만 연습한 것과 240미터 드라이버만 연습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다음 날 얻어지는 결과는 어떨까? 짧은 거리 연습을 한 경우가 몇 배 정도로 드라이버 샷이 더 정교해지고 거리도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거리의 연습을 중점적으로 한 후, 목표 선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정성 들여 의도한 샷이 나오는가를 스스로 세심하게 평가하면서 연습한다면 많은 양의 볼을 치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본 원리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 여건상 시니어로 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로우 메인트넌스의 형태가 어울린다고 본다.

기어 이펙트(Gear effect)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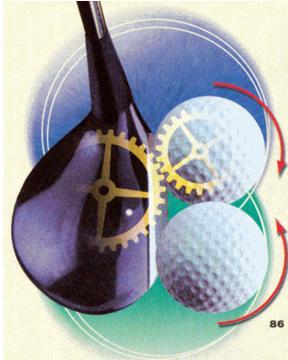
클럽의 역학적 특성 중 관심만 가지면 스코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어 이펙트(Gear effect)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말로 '치차'라고 하는 기어 이펙트(Gear effect)를 공기역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립, 스윙, 그리고 스탠스가 일정한 골퍼가 클럽 페이스(Club face)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 C.G.)에 공을 히팅시켰을 때 볼이

겨냥한 곳으로 정확히 갔는데, 만일 위의 모든 조건들이 같고 단지 공을 클럽 페이스의 무게 중심보다 안쪽에 히팅시켰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페이드드 볼(Faded ball)이나 슬라이스 볼(Slice ball)이 나오고, 반대의 경우에는 드로우 볼(Draw ball)이나 훅볼(Hook ball)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치차(Gear)라는 단어를 썼을까?

클럽 헤드의 무게중심 위치에 반지름이 대략 3센티미터의 기어를 놓았다고 생각하고, 공의 중심점에 공 크기의 기어를 놓고 서로 맞물려간다고 생각한다. 만일 다른 것은 완벽하였지만 클럽 페이스 무게중심의 안쪽에 히팅했다면, 클럽이 회전하면서 맞물린 공의 기어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위에서 보았을 때 시계방향)하게 되고, 공은 앞으로 나가는 추력과 양력 및 항력, 그리고 지구의 중력 등 복합적인 힘에 의해 날아가다가 속도의 변화에 따라 시계방향의 회전력으로 인해 우측으로 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야구나 축구 또는 당구 등에서 의도적으로 공을 회전시켜 커브 볼을 만들어 내는 원리와 같다.

이처럼 치차가 서로 맞물려 반대 방향의 회전력을 주는 것을 '기어 이펙트'라고 말하며 사이드 스핀(Side spin : 시계 혹은 반시계방향) 뿐만 아니고 백 스핀(Back spin)도



- Golf digest -

- 가. 클럽헤드의 무게 중심과 공의 중심점에 치차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클럽헤드를 전진시킨다.
- 나. 공이 클럽의 무게중심 안쪽에 히팅되었다면 양쪽 치차는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게 되므로, 공은 전진하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슬라이스 쪽으로 비행한다.
- 다. 공이 바깥쪽에 히팅되었다면 반대로 반시계방향의 회전력에 의해 훅 쪽으로 비행한다.

[그림 1] 공의 회전방향과 기어 이펙트

마찬가지로 설명이 된다.

이와 같이 구질은 공을 히팅시켜주는 포인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관점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스위트 스팟(Sweet spot)에 히팅시켜주기만 해도 수준급 골퍼가 될 텐데도, 적합하지 않는 수정방법과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티의 정중앙에 맞추기 연습(Click the tee)

미국의 유명한 골프 교습가인 페닉(Harvey Penick)은 그의 저서인 '리틀 그린 북(Little Green Book)' 속에서, 아마추어 골퍼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을 히팅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

는 상태에서, 마치 무슨 큰 비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습을 받으러 온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트 위의 고무 티(Tee)를 열심히 빈 스윙으로 클릭(Click : 보다 더 정교한 스위트 스팟 히팅) 연습을 한 후에 자신이 있을 때 다시 올 것을 권유했다는 일화가 있다.

정중앙에 히팅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필드에 나가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실수는 클럽의 원하는 곳에 공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300야드가 넘는 거리를 날리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을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덜 풀린 몸을 의식하면서 스위트 스팟에 정확하게 히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부드럽게 80%의 힘만으로 스윙하는 것이 아마추어에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는 효과적인 연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때 “티의 정중앙을 히팅하라”는 조언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연습장에서도 최대한으로 힘 있게 휘두르는 것은 결코 좋은 연습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짧은 거리를 겨냥해서 부드러운 스윙으로 클럽 정중앙에 맞추는 연습을 통해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스윙 만들기

골퍼들은 각기 신체적인 조건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스윙 폼을 강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자기와 신체 조건들이 비슷하거나, 보기에 우아하게 스윙을 하는 프로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구력이 어느 정도 쌓여가고 기량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만의 독특한 스윙 폼이 다져지고 견고한 샷을 웬만큼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그만 수정은 고려해도 좋으나 기본(Basic guidelines)을 벗어나서 크게 수정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한다.

교습가인 페닉은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하라(Play natural)”, “너 자신만의 견고한 스윙을 발전시켜라(Develop a sound swing of your own)”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조언했다. 그의 제자인 미키(Mickey Wright)가

“선생님, 저도 베티(Betsy)처럼 백스윙을 더 하고, 수직 쪽으로 올려줄까요?”하며 은근히 미모와 우아한 스윙을 갖춘 베티(Betsy Rawls)를 부러워하니, “아니야, 똑같은 스윙을 두 사람이 하고 있으니 고치지 말거라”라고 조언하였다. 사실은 전혀 다른 백스윙을 하고 있었지만 단지 우아함의 차이일 뿐이었다. 실제로 투어에서 미키는 베티보다 월등히 많은 승수를 쌓은 전설적인 골퍼였고, 15년간의 LPGA 선수 생활 동안 메이저 13회를 포함하여 총 82회의 우승을 하였으며, “50여년간 어렸을 때 익힌 완벽한 스윙을 구사하고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베티는 미키를 항상 극찬하였다.

페닉은 대부분의 골퍼들이 이상형의 골프 스윙을 모방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하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천부성(Natural styles)을 약하게 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견고한 스윙(Sound swing)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타이거 우즈(Tiger Woods)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그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쉬운 스윙으로,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방법이 오히려 유익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앞에서 조언한 것처럼 ‘견고한 자기스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시니어 골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대방과 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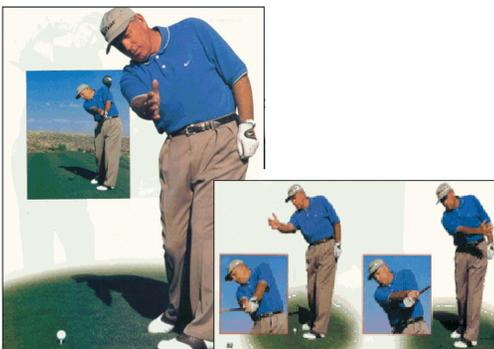
“목표방향에 있는 상대방과 악수를 하라 (Shake your hands with the target)”는 말은 바로 타이거의 스승이었던 하몬(Butch Harmon)의 골프스윙 팁(Tip) 중 하나로서, 임팩트(Impact)가 이루어진 후 목표 지점을 향해 양쪽 팔을 쭉 펴주라는 조언이다. 이 말을 머리에 담아두고, 실전에 임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오른 팔로 목표방향에 있는 상대방과 악수를 청하듯이 오른손을 내미는데,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손의 모양새와 방향이 된다.

시니어 골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 중의 하나가 임팩트 이후의 부적절한 동작으로 인해 거리와 방향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하체의 견고함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라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게 되고, 허리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목표방향)과 악수를 하라”는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임팩트 이후에 과감하게 목표 방향으로 양손과 클럽을 던져주고, 몸통을 자연스럽게 목표 방향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 돌려주면서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다. 이 때 양손의 위치가 벨트 위를 통과할 때 오른손의 모양은 손바닥과 손등이 수직으로 90도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피니쉬 동작으로 들어가, 피니쉬의 정점에서 왼손의 손바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체형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악수를 해야 하는 상대방의 오른손이 정확히 목표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깨나 허리를 덜 돌려준다면, 혹은 과도하게 더 돌려 악수를



- Golf magazine -

가, 좌측 그림 : 상대방의 손을 향해 정확한 방향으로 손을 쭉 뻗어주면서 몸통도 같이 돌려주고 있다. 이때 오른손 바닥은 직각 위치를 만든다.

나. 우측 그림 : 좌측은 악수를 청하는 손과 몸통이 1시 방향 정도로 미달되어 푸시(Push)가 되면서 슬라이스볼이 나오고, 우측은 11시 방향까지 더 돌려주므로 훅볼이 발생한다.

[그림 2] 하몬의 악수



청한다면 그 악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 손이 12시 방향에 있는데 악수를 청하는 손이 1시 방향 쪽에 가깝다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 푸시(Push) 상태로 페이드드 또는 슬라이스가 나오고, 11시 방향 쪽으로 더 돌아갔다면 풀(Pull) 상태로 덕 후크(Duck hook), 나쁜 형태의 드로 또는 훅이 나올 수 있다. 습관적으로 힘을 넣어 히팅했던 골퍼들은 60%의 힘과 스윙 스피드로 연습을 시작하고, 대략 그 연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80% 정도의 힘과 스윙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제력만 있으면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를 터득하고 염두에 두며 라운딩을 한다면 실수 한두 개는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몇 개의 좋은 샷을 만들어낼 것이다. 비슷하게 잘 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티의 정중앙을 히팅하라', '악수를 하라' 로 되돌아가 이를 반복하게 되면 익숙해질 것이다. 그 짧은(약 1~2개월) 혼동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좋은 샷을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효과적인 연습사례 소개

첫째는 30년 구력의 골퍼가 20야드 거리 연습으로 스코어 장벽을 깬 경우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골프TV 채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티칭 프로 맥클린(Jim

Mclean)의 평생 잊지 못할 교습경험을 소개한 내용이다. 30년 구력을 가진 스미스(Roger Smith)라는 골퍼가 스코어 장벽을 깬 이야기로, 그는 어쩌다 한번 90타 이내를 치는 그렁고 그런 골퍼였다. 스미스가 그를 찾아와 레슨을 부탁하여 유심히 관찰하여 보니, 감각이나 재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공을 정확히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맞았을 때에도 페이드드(Faded)나 위크 슬라이스(Weak slice)가 나는 상태였다.

맥클린은 레슨기간 중 스미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먼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습성을 깨고 변화시켜주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20야드 미만의 거리를 7번 아이언으로 1개월간 칩핑 연습 하나만을 하고, 볼을 히팅시킬 땐 클럽 페이스를 인사이드에서 시작하여 스퀘어로 유지할 것과 피니쉬는 홀드할 것을 주문하였다.

말이 쉽지 30년 동안 공을 친 사람이 기껏 비싼 레슨비에 1개월 동안 20야드 샷 연습이라니, 여러분 같으면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여하간 1개월을 잘 소화해 낸 스미스는 레슨을 끝내고 조금씩 스코어가 줄어들면서 연말에는 82타라는 생애 최고 스코어를 맞출 수 있었다. 해가 바뀌고 클럽 챔피언십 매치 플레이에 참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치고, 드디어 결승전까지 올라간 스미스는 핸디캡 5의 클럽 챔피언과 맞붙게 되었으며 마



침내 승리는 1업(Up)으로 스미스의 것이 되었다. 맥클린은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스미스가 보여준 멋진 승리의 함박웃음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둘째는 작은 근육 연습으로 300야드를 바라보게 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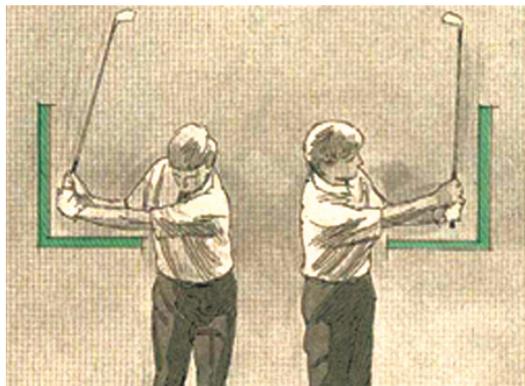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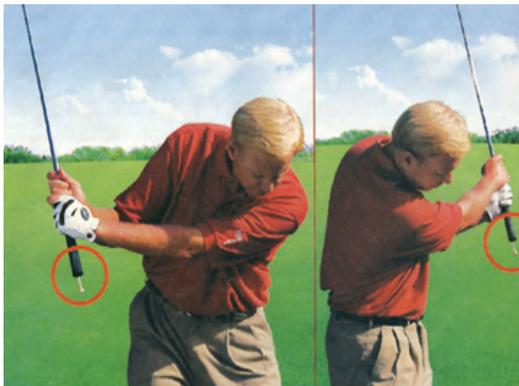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골퍼들에게 골프 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아주 적절한 레슨 방법인 ‘엘 스윙(L-Swing)’ 연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누구나 비슷한 큰 샷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큰 근육사용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작은 근육과 결들어진 조화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몸통, 팔, 그리고 손목을 조화시켜주며, 스윙 감각을 쉽게 찾아

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엘 스윙 연습이 추천된다.

엘 스윙 연습은 먼저 8번 아이언을 잡고 그립 끝에 티를 꽂은 다음, 백스윙을 양쪽 팔이 수평 정도만 오도록 3/4스윙을 하며, 샤프트와 팔이 90도를 이루도록 한다. 이 때 몸을 자연스럽게 돌려주면서 스윙하고, 같은 요령으로 공을 히팅한 후 양쪽 팔이 수평에 머물도록 하며, 샤프트와 다시 90도 각도를 유지시키는 ‘L’자 스윙을 하는 동작이다. 물론 팔과 몸통이 조화된 부드러운 동작으로 하프스윙을 하며, 그립 끝에 꽂은 티의 방향은 항상 목표 선을 따라가도록 한다.

이런 연습스윙은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연습이 되고, 어디에서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작은 스윙을 통해 앞서 제시한 ‘티의 정중앙을 히팅하라’와 ‘박수를 하라



- Golf magazine -

[그림 3] 엘 스윙(L-Swing) 연습



는 조언을 동시에 연습하는 로우 메인트넌스의 종합 비타민인 셈이다.

골프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운동에 비해 훨씬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미가 있으니 필드에 나가고, 정다운 사람들과 어울려 자연도 감상하고 담소도 나누며 건강도 도모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값진 운동인가? 또 다른 매력은 예측할 수 없고 쉽사리 정복되지 않는 도도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며,

내일은 더 좋은 스코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샷이 잘돼야 여유가 생기고, 자연도 눈에 더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너그러운도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샷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명한 교습가들이 경험을 통해 조언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글이 여러분의 골프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웃으면 좋아요

<아버지 직업>

내 친구 아버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나 내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석공인줄 알았다고 했다.
왜? 라고 하니 아버지가 항상 출근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석가야, 아빠 오늘도 돌 많이 깨고 올께.”



희망, 삶과 행복의 위대한 힘



37기 사관 강동우

암(癌)에 걸린 사람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암 발생 사실을 숨긴 채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기 암에 걸려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투병의 의지를 낮추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금방 사색이 되어 당장 내일 목숨이 끊어질 듯한 절망에 빠져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 암의 진행상태와는 관계없이 사람에 따라 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예상되는 기한을 넘기고도 거뜬히 생존을 유지하는가 하면, 충분히 기대되는 기한까지도 버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하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에 처해서도 인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덕목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희망이다.

미국 하버드 의대 암 전문의 제롬 그루프먼은 수많은 암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희망이야말로 암을 정복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 역시도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며, 또는 숨기는 게 좋을지에 대하여 갈등하고 번민하는 여러 모습을 연출하지만 마침내는 진상을 드러내놓고 공동 투쟁하자는데 의지를 모은다. 인간에게는 신이 부여한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도 믿는 까닭일 것이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랜싯'에는 심부전(心不全)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환자의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팀은 심부전 환자 7,59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과 심부전 치료 약물을 복용하게 한 후, 38개월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처방된 약물을 80% 이상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34% 낮았다. 놀랍게도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만으로도 병세는 호전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새삼스럽게 숙연한 자세가 된다. 삶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삶을 볼 때에 어떤 인생관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삶을 돌아보면 후회요 회한의 한 평생이다.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 더 보태고 뺄 것도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복할 일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삶이 마냥 환희에 차고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반대로 ‘사회적 지위며 남에게 뽐낼 만한 돈이며 없는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도 불행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느냐(?)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돈인가? 돈 많은 사람이 더욱 불행하다는 사실을 뒤집을 진실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다. 돈이 없으면 누구든 궁핍을 감내해야 하며 궁핍이라는 사실 자체가 행복할 수 없음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가난한 사람이 불행하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의 국민을 예로 들어 가장 모범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라고 칭송해 마지않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사실일지언정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제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 행복을 연구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이 잘된 덴마크 같은 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빈국인 인도나 티벳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기도 하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세계 제1위인 나라가 자살률로도 가장 높은 아이러니도 있다.

우리들의 상식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횡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면, 돈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소원이던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당첨될 당시에는 행복하지만 그 일시적인 행복감은 곧 일상의 온갖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 미래를 위한 투자, 더 이국적인 휴가를 보내는 등 적어도 외견상론 그 이상의 행복을 어떻게 만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화려한 삶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두통이 심해지는 이유



는 다른데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선 단체들의 집요한 기부요구, 친구나 인척들의 시샘어린 질투와 냉대, 괴롭힘 등으로 황재하기 전보다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실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불행해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출세를 하면 행복할까? 출세는 또 어떤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 감옥 가는 사람을 행복하지 않다고 보면 그 말도 함부로 주장할 건 아니다 싶다.

타고난 성격이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를 ‘행복’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이비드 나이어스’라는 학자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항상 쾌활해 보이거나 적어도 만족해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우울해 보인다. 이와 같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쁨이나 고통을 주는 어떠한 사건도 장기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놀랄 만큼 적은 것이다. 물론 하루는 비참한 기분에 잠겨있다가도 이튿날에는 날아갈듯이 행복해하는 등 잦은 기분변화에 시달리는 사람—이렇게 기분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성향의 극단적인 형태가 조울증이다—은 예외다.’

‘장애아로 태어났거나 심각한 사고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

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본보기를 제공한다. 보조기구의 효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자의 삶은 심각한 제약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자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슬픔을 느낄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사고로 장애자가 되면 처음 몇 달 동안은 몹시 불행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사자들은 심각한 사고로 신체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을 면담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행복 수준이 결국에는 어느 때와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런 비극에 일단 적응하면 기대치가 달라져서, 사고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상황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다. 조사자들이 면담한 사람들 대다수는 “거의 전만큼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신체장애자 가운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주장한 사람의 비율은 놀랍게도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작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1965년에 데이비드 모버그와 마빈 테이브스는 노인에게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믿음은 실존적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것은 ‘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을 의미했다. 예배도 강한 긍정적 감정을 낳



는 원천이다. 예배는 행복의 구성요소인 적극성에 이바지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도 덜 우울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교회 신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체험을 한다. 자유나 진선미 같은 숭고한 대상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이런 신비적 체험을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행복의 가장 숭고한 형태인 ‘영적 체험’을 언급하지 않으면 행복을 완전히 설명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체험은 워낙 드물어서, 운이 좋은 사람도 평생 두어번 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세계와 합일’ 하는 초월적 순간이다. 그 바탕에는 더없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영적 체험은 조증(躁症)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느긋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조증환자와 영적 체험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약 70%가 횡재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듯한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그 같은 공허감은 행복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실업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직장을 잃으면, 실제로 증상

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정신 건강이 나빠짐을 알리는 경고 신호가 분명히 나타난다. 실직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실업자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같은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도 일부러 노력하고 연습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저 주어지는 기쁨을 수동적으로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하여야 한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운동인데, 운동이야말로 직간접적으로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신은 신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교훈은 행복을 창조하는 조건이다. 운동이 기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에는 쾌락과 만족감이 수반되는데, 일시적인 쾌락에는 유의할 바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음악이 기쁨과 흥분을 제공하는 유익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격렬한 리듬은 일시적 쾌락을 줄 뿐이므로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나이어스는 「장기적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성격을 제외하면 우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명백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친구와 어울리고 있을 때 대개 긍정적인 기분이 된다고 한다. 기분은 전염된다. 옆에 있는 친구가 성이나 있거나, 우울한 인상을 짓고 있으면 당장에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긴장되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코넬 대학의 로버트 크라우트와 로버트 존스톤은 1979년에 볼링장에서 연구를 실시한 뒤, 우정과 행복한 웃음의 상호작용을 보고 했는데, 볼링을 하는 사람들은 핀을 맞혔든 못 맞혔든 관계없이 핀보다 서로에게 훨씬 자주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손꼽았다. 길거리의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혼자 있는 사람은 흐린 날보다 화창한 날 미소를 띠 가능성이 높지만,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미소를 지은 것이었다.

16세기 명나라 선비인 원요범(袁了凡)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요범사훈(了凡四訓)」이란 교훈서를 남겼는데, 착하게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 자신의 빈부나 수명이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 설령 금생에 부와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과도한 악행을 하게 되면 내생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금생에 가난해지고 수명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본래 가난하고 단명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범적인 선행을 하면 부자가 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 책은 운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란 무모한 도박과도 같은 비합리적 처세일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낙관으로 비취질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희망이 진실의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온갖 비관적 전망과 부정적 예후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의연히 절망적 상황과 대처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암의 진행을 일일이 알고 대처한다는 건 보통 배짱으로 될 일이 아니다. 희망이란, 진실을 알고 진실과 맞서는 용기가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희망은 믿음이 뒷받침될 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암도 이겨내고 운명도 극복한다. 그것이 희망의 위대한 힘이다.

‘실패작’ 씨의 웃음



7기 사관 김국창

나는 가끔 혼자 실없이 웃곤 한다. 집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머리가 조금씩 이상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의 눈길로 나를 쳐다 본다. 그러나 사실은 밝게, 건강하게 살아보려는 야심찬 노력의 일환으로 ‘웃음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한 때면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 뒷동산과 실개천에서 뛰놀던 옛 친구들을 회상하며 웃기도 하고 초등학교 시절의 짝꿍, 영숙이를 놀려먹던 기억이 떠올라 미소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요즈음엔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하도 답답하다보니 실성한 사람 취급 받을까봐 웃기도 조심스럽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긴박한 상황에

서도 각료회의 중에 유머를 던져 각료들을 한바탕 웃김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게 했단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웃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적 이야기지만 그러나 요즈음은 웃어 봐도 결국은 실소, 냉소 아니면 조소가 되기가 십상이니 마음의 여유와는 거리가 멀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나라 안에 살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 북한은 핵을 앞세워 그동안 말해 왔던 ‘서울 불바다’ 대신 ‘핵 한방이면 남쪽은 끝난다’고 공갈을 치며 부당한 요구를 해낼 우려가 큰 상황이 됐다. 마침 평양에서 핵실험 성공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는 날에 맞춰 여당의 큰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찾아가 저쪽 여진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웃고 있는 소아병적 코미디를 본 후부터 나 같은 소시민은 판단이 흐려져 웃고 있을 때의 구분마저 헛갈리고 말았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건강을 위하여 그냥 웃고 사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동기생들이 만날 때



면 그것이 회식이든 등산이나 골프가 되든 모든 것 잊고 마냥 웃기만 하기로 마음이 모아졌다. 동기생끼리 만났으니 무슨 이야기들 못하랴! 대개는 “No, No”하며 골치 아픈 시국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금세 재치가 넘치는 말들로 웃음의 물꼬가 터져 웃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어느 길모퉁이에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발관이 있더라. 이발사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예쁘장한 면도사 아가씨의 눈웃음이 손님을 끌어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후 3시경 40대 중반의 신사가 들어서며 “이발사 아저씨, 얼마나 기다려야 이발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이발사 아저씨 왈 “한 두어 시간 후에나...” 신사는 알았다며 나가더니 두 시간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았다. 며칠 후 같은 시간에 그 신사가 나타나더니 같은 질문을 한다. 이발사가 또 “두어 시간 후...”라고 하자 신사는 알았다며 급히 사라진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난 그 신사는 아예 문만 뚫고 열어보고 “손님이 많네” 하고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한 이발사는 면도사 아가씨를 시켜 뒤를 밟게 했다. 잠시 후에 돌아온 아가씨는 “아저씨!! 글썄, 그 신사가 곧장 아저씨 댁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사모님이 나와 반갑게 맞으며 함께 안으로 들어가세요.”라는 말

을 듣자 이발사는 금세 얼굴이 시뻘컘게 상기된 채 면도칼을 거머쥐고 집으로 뛰어 갔다(이하는 상상에 맡김). 낭랑특집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폭소는 터지고, 일단 웃음의 물꼬를 트고 나니 너도 나도 E.D.P.S.(음담패설의 첫 음자) 한마디씩을 쏟아낸다. 웃음은 폭발하고 계속 배꼽을 잡는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EDPS’를 능가할 만한 유머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군복을 벗은 후 앞길이 막막하던 차에 어느 분의 소개로 ‘새마을금고 연합회’라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 회장께서는 ‘고급장교 출신이니 새마을금고 연합회 서울시 사무국장(1급)’을 맡으라는 말씀이었지만 나는 어릴 적 꿈이 교사였으며 교육원 교수로 보내달라고 건의했다. 그곳엔 현재 3급 자리 밖에 없다가에 결국 두 직급을 내려 중앙교육원 교수(3급)로 발령을 받았다.

일자리 확보의 기쁨을 안고 막상 서울 수유리의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중앙교육원’에 부임하고 보니 사회생활의 첫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걸핏하면 ‘낙하산, 군발이’라며 수군대고 돌아서는 교직원들의 배타적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겸손, 배품, 그리고 유머로 허물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굽히고 가끔 술



을 사며 유머가 깃들은 대화로 접근하다보니 배타의 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유머의 구사였는데 그 역할을 공군정신교육원에 강사로 나가던 시절에 수집해 놓은 ‘유머 모음’이 해줄 줄은 미처 몰랐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지만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교직원들과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게된 것은 실력보다는 순전히 강단에서 잘 웃고 잘 웃긴 덕이었다.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즐거나 분위기가 산만할 때 칠판에 “내 힘들다”라고 크게 적어 놓고 분필로 칠판을 딱딱 치면 학생들은 칠판 글씨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며 긴장하게 된다. 이 때 넌지시 반대로 읽어 보라고 한다.

“내 힘들다→다들 힘내”가 된다. 그래서 한 바탕 웃고 나면 줄음도 달아나고 분위기는 쇠신된다. 조는 학생에게 짜증을 내며 분필조각을 집어 던지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인기도 끌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강의 중에 상황에 알맞은 유머를 순발력 있게 구사, 순간적으로 웃음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강의실 유머는 짧고 강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저속하지 않고 교훈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웃기려 했는데 웃지 않으면 민망하고 그렇다고 음담패설을 했다가는 쫓

겨나기 십상이다. 지금도 가끔 그 때의 교안에 메모된 예시(例示)를 들춰보면서 홀로 웃기도 하고 남들을 웃기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 엘에이(LA) 의과대학 N. 커즌스 박사는 자기가 교원병(膠原病)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처음에는 자포자기했다. 그러나 스스로 ‘웃음 치료법’을 고안하여 계획적으로 계속 웃어댄 결과 자기의 병을 치유했다. 크게 한 바탕 웃고 나면 두 시간 동안 통증을 안 느끼고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며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웃음은 ‘체내 운동’인 동시에 자기 몸속의 ‘조강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탠포드 의대 정신과의 W. 프라이 교수도 하루에 100번 이상 웃으면 10분 이상 노를 젓는 것과 맞먹는 운동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웃음운동을 강조했다고 하니 유념해 볼 일이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은근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내 초등학교 동창 중에 ‘실패작’이란 사람이 있다. ‘신이 실패한 작품’이란 뜻으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하도 묘하게 생긴 얼굴이라서 쳐다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초면에 웃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가 먼저 알고 웃어 버리니 그저 따라 웃기



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실패작”하고 부르면 “응”하고 대답하는 참 편한 친구! 그는 재미있게 생긴 얼굴과 순박한 웃음 덕택에 친구가 많으며 미소가 예쁜 부인과 함께 교회에서 지어준 ‘웃음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즐겁게 살고 있다. 그의 부인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게 보인다. 그 비결을 물으면 자기 남편을 가리키며 저 얼굴을 보며 웃고 살다보니 늙을 틈이 없다고 스스로없이 대답한다. 그래서 웃음은 보약이란 말이 나온 모양이다. 영어 속담에 “A laugh keeps a doctor away”란 말이 있다. 웃음은 의사를 필요 없게 한다는 뜻일 게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행복은 너의 곁에 있으니 그것을 잡는 법만 알면 된다.”고 했다. 나는 감히 그 방법이 ‘웃음’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란 말은 알면서도 웃음을 잃고 굳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채화 같은 웃음이 그림다. 엄마의 품에

안겨 방긋이 미소 짓는 아기의 웃음처럼 아무런 욕심도, 시기도, 거짓도, 악의도 없는 그런 천진난만한 웃음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근래 와서 북핵문제, 경제문제, 국민적 갈등구조 등으로 가뜩이나 지쳐 있는 우리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유머,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익살, 포근하게 마음을 감싸줄 해학 등으로 이루어진 ‘웃음의 핵폭탄’이라도 마련할 비책은 없는지 갈급한 마음뿐이다.

‘한국웃음운동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웃음과 건강에 대하여 연구하는 이곳의 이모소장은 ‘웃음운동’을 일주일만 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한 달만 하면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며 자주 웃다보면 주름진 얼굴까지 확 펴진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웃음운동이라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웃는 얼굴, 즐거운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몸을 견지하여 전역 후의 생활을 더욱 밝고 멋지게 해 나가시도록 비는 마음 간절하다.

마음으로 듣기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도 역시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이다.

- 윌리엄 해즐릿 -

내 인생의 하프 타임



33기 사관 원형건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2002 월드컵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흥분과 감격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대표팀은 당초 목표를 넘어 4강 신화를 창조하였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IMF 시기의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더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당시 대표팀 감독의 리더십은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고질병을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평소 축구에 별 관심이 없던 저에게도 축구가 단지 보고 즐기는 스포츠일 뿐이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그 속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지혜를 담고 있는 보고(寶庫)처럼 생각되

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축구에 비유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구는 전반(First Half)과 후반(Second Half), 그리고 전·후반 사이에 놓여있는 10분의 하프 타임(Half Time)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푸른 잔디에서 벌어지는 선수들의 치열한 공방전을 보노라면 경기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잠시의 여유도 없이 뛰고 있는 우리네 인생살이와 흡사하게 보입니다. 또한 전·후반 사이의 하프 타임은 전반을 끝낸 선수들에게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는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변환기에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40대들에게 있어 하프 타임은 단지 육체적 힘의 의미를 넘어 보다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는 ‘마법의 시간(magic time)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반전을 회상하며...

저를 포함하여 함께 임관(1985년)했던 동



기생들도 어느덧 21년의 군 생활을 경험한 40대 중반의 어엿한 중견간부들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조국의 영공 수호를 위해 맡겨진 임무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보냈던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20대의 청년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만의 성공방정식을 세우고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해답을 찾느라 전전긍긍했던 30대 시절도 그렇습니다. 특히 성공방정식의 해답은 한 가지가 아님을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참된 선배'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영광과 욕망을 앞세운 이기적 모습도 간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2001년도에 평소 리더십에 관심이 많던 제게 「공군 리더십 모델 개발(2001년 12월 완료)」 연구를 수행하면서 군 생활의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군은 앞서가신 선배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첨단 무기체계 등 유형전력의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형전력뿐만 아니라 문화나 인적자원 같은 무형자산이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무형전력의 요체인 장병들의 리더십 역량 개발이 제게 맡겨진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구

현하기 위한 리더십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키지도 않은 후속연구 수행을 자청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로 현재 공군 인터넷에 탑재되어 장병들의 리더십과 성격 유형 진단 및 리더십 커뮤니티로 활용되고 있는 「공군 사이버 리더십센터」(2002년 8월 구축)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금년 3월 중순 「공군 리더십센터」가 창설됨으로써 5년 만에 소망이 현실이 되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을 목표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프 타임이 필요하다.

40대 중반이 되면 기업에서는 정리대상 영순위를 의미하는 「사오정」이라 부릅니다. 다행스럽게도 40대 중반에 접어든 저희 동기생들은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향후 10년 이내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후반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자기 인생의 하프 타임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프 타임을 휴식시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축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프 타임은 휴식 그 이



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반전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수교체 여부와 포지션 변경, 전술 검토 등 후반전을 대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경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 (to success)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는’ (to significance) 여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보다는 ‘익숙하게 잘 하던 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지식, 경험 그리고

부(富)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넓은 지식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종전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방식에 계속 의문을 던지며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실천적 행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40대는 세상을 통해 알게 된 자기 목소리를 서서히 듣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나름대로 절망과 한계, 비겁함과 소심함,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홀로 서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40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찾아야 할 하프 타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졌던 진실한 꿈의 거처를 찾아 더 늦기 전에 그 꿈을 실행에 옮기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듣기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 -



7 기생 동정

칠성 산악회(7기생)는 7년 전 3명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12~15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을 정기 등산일로 정하여 서울 근교의 관악산, 도봉산, 북한산을 주로 오르지만 가끔은 청계산, 불암산, 수락산을 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분기 1회 정도는 여유 있는 일정으로 원정 등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리산, 덕유산, 계룡산, 치악산, 용문산, 백암산 등을 1~2회씩 올랐다. 지난 10월 말에는 부인 4명을 포함, 17명이 올진의 백암온천, 백암산(사진 참조), 불영사 등을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제 나이가 70을 넘다보니 몸이 부실하거나 외롭게 되는 동기생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억지로라도 불러내어 함께 어울려 등산을

하다보면 금방 몸도, 정신도 좋아지는 것을 보며 흐뭇함을 느끼기도 한다.

식사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때로는 집에서 정성껏 담긴 매실주, 오가피주, 복분자주 등을 가져와 함께 대접을 함으로써 동기생 사이에서만 느끼는 특유의 정을 함께 나눈다. '9988'을 외치며 술이 몇 순배 돌다보면 으레 걸쭉한 재담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서로 웃기고 웃으며 배꼽을 잡게 되는데 이게 요즈음 웃음 건강법의 실천이기도 하다. 가끔은 1959년 사천기지에서 비행훈련 받을 때 억세게 때리던 교관님들을 안주삼아 때늦은 언어폭력으로 가상 보복을 하다보면 어느새 낙하산을 짊어진 채 'T-6의 날개끝(Wing Tip)'을 잡고 뛰던 조종학생으로 돌아가게 되니 역시 동기생이 좋다.

백암산 등정 후 경주역에서



백암산 정상
(1,004m)





8 기생 동정

팔진회가 철마(鐵馬)로 실크로드를 달렸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의 길인 옛 실크로드를 동기생 일행이 8박 9일(8. 29.~9. 6.) 일정으로 다녀왔다.

먼먼 옛날 신라 승려 혜초(서기 704~787) 스님,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서기 600~664) 스님 등 구도자들과 수많은 대상(隊商)들이 낙타를 타고 몇 달씩 걸어서 오갔던 바로 그 길을 철마(鐵馬)가 달리고 있었고, 시원스럽게 뚫린 포장길을 크고 작은 많은 자동차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일정 중 관광코스였던 우루무치, 투루판, 선선, 하밀과 둔황은 대상들과 낙타들이 어렵게 우물을 찾아 갈증이나 달래던 곳(오아시스)이었으나 지금은 설산(雪山)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을 끌어들여 가로수를 심고

시민공원을 만들고 크고 작은 많은 건물을 지어 잘 발달된 도시였다. 그리고 동서문화의 격돌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도시 인근의 둔황 막고굴을 비롯한 천년 유적들을 나름대로 잘 복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광활한 고비사막은 이제는 더 이상 물 한방울 없고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사막이 아니고 유전(油田)을 포함한 많은 지하자원의 보고(寶庫)였다. 요즈음 실크로드의 연장선인 중앙아시아(카스피해와 주변 국가들)에서 세차게 일고 있는 검은 불길이 곧 옮겨 붙을 것만 같았다.

일행은 일출을 보려고 둔황 인근 명사산(鳴沙山/해발1,700m 모래산) 정상을 낙타를 타고 올랐다. 동서문화의 격돌현장과 실크로드의 변천과정을 모두 굽어 보았으면만 태양은 그 날(2006. 9. 1.)도 말없이 떠올랐다.



낙타들과 대상들의 발자국 대신 관광객의 발자국으로 채워진 월화천 입구



9 기생 동정

은하회 가족의 즐거운 강릉모임

은하회는 우의와 건강을 다지기 위하여 매 주 화요일 15~20여 명이 모여 등산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는 25명이 부부동반으로 관광버스를 대절 강릉으로 출발하여 비행장에서 이틀간 골프로 친목을 도모하고 저녁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주연을 즐기고 밤늦은 시간까지 여흥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임원진, 그리고 버스, 음료수, 주류를 찬조하여 즐거운 여흥을 도운 은하회 회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미



수(米壽)까지 이런 행사(行事)가 계속되기를 기원(祈願)한다.

비행단장(이영만 준장 27기)의 따뜻한 영접과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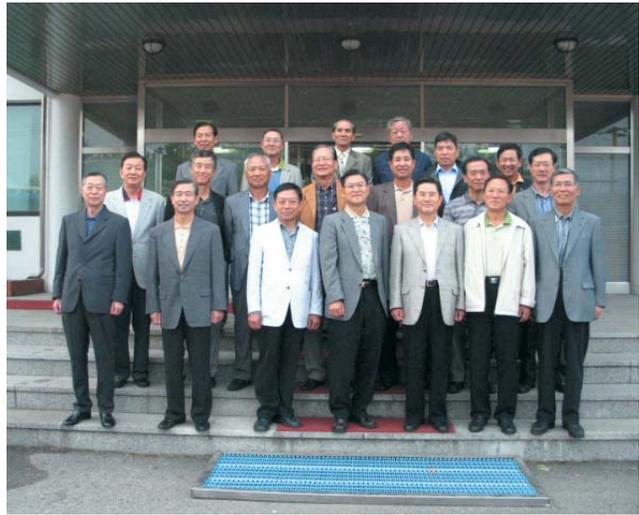




14기생 동정

총조회원 총동창회 운영 적극참여
자축 모임

공사 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된 14차 운영기수는 기금찬조에 적극 호응하여 일찌감치 목표액을 달성하였다. 동참협조에 대한 감사와 동기생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코자 20비를 방문하여 일부는 골프를, 일부는 주변 석유 비축기지 및 수덕사 관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26일, 미 부시 대통령은 안소현 박사(14기 사관 안택순 동문 여식) 등 50여 명에게 젊은 유망과학자 상을 수여하였다. 안 박사는 미국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주자다.

2004년에는 손가락 다섯 개가 다른 모양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2005년에는 신경줄기세포가 뇌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밝혀, '셀 및 네이처 지에' 각각 발표했고 이 연구는 뇌종양 및 치매치료 등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 안 박사는 서울대 화학과 졸업 후 미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 국립보건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16 기생 동정

승운회(16기 사관)에서는 회원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통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산(회장 함중하), 정구(회장 이수웅), 골프(회장 배충정), 그리고 바둑(회장 이재기) 동호회를 조직하였다. 동호회별 모임은 매월 1~2회씩 실시하고 있다.

중앙일보에서는 2006년 10월 1일자로 제24기 패밀리 리포터 10명을 선발하였다. 여기에 추정림(김정옥 동문) 가족회원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지면 모니터 및 현장 취재를 통해 패밀리 섹션을 비롯한 각 지면의 제작에 참여한다.



중앙일보 리포터들의 당찬 다짐
(아래 우측 두 번째 추정림 가족회원)



20기생 동정



2006년 9월 14일 참모총장의 초청행사가 있었다.

김성일 총장은 영공방위의 최전선에서 지휘관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청의회(20기 사관) 회원들을 계룡대에 초청 친목행사를 주관해 주었다.

이 모임에는 86명(청의회원 50명과 가족 회원 36명)이 참석하였으며 공군의 발전상

브리핑, 운동, 지역문화 탐방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동기애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 단신 : 차종권 회원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취임,
정제택 회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산하 DMC(K) 대표 취임



대한항공 공사동문 여가 선용 소개

대한항공 공사동문회는 회원 340여 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직장 동문회로서 운항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 기회를 증대하고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문회 활동과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종합체육대회는 매년 1회, 등산, 테니스, 골프대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회사의 발전과 비행안전을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새로 입사하는 동문의 회사적응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동문회를 이끌어온 남백우(22기) 기장의 뒤를 이어 12월 15일 정희균(23기) 기장이 신임회장에 취임하였다.

공사총동창회 이억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적극적으로 동문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 동문회 임원들을 초대하여 운동을 함께 하면서 격려했다.



대한항공 공사동문회 체육대회



총동창회 임원과의 운동



미주지회 동문동정



미주 서부지역(LA지회)에서는 3군 골프동호회 모임(2006년 8월 8일, 해군 주관)이 있었는데, 천영성 동문(1기 사관)이 메달리스트가 되어 노익장을 과시했다.

또한 육사생도 80여 명(2006년 8월 20일)이 해외탐방으로 미주 캘리포니아를 방문함에 최권묵 동문(11기 사관)이 축하행사에 동참하여 하루 일정으로 6명을 자택으로 초대, 이곳의 삶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9월 10일 정기동문 모임(공군 주관)에는 32명의 동문을 비롯하여 가족을 포함한 57명이 참석하여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동문들이 칠순을 넘겼지만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 동문도 있으며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로 4박 5일 정도의 크루즈도 계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60여 명의 동문들이 상부상조하여 잘 지내고 있으며 여행 중 기회가 되어 연락하시면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미주동부(뉴욕)동문회(육사 박응익 회장, 해사 김정삼 회장, 공사 진태선 회장)는 2006년 10월 7일 롱아일랜드의 미드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추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3사 뉴욕동문회는 몸은 군을 떠나 왔지만 마음은 항상 조국을 생각하면서, 동문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며, 또한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월 17일에는 뉴욕과 필라 및 보스턴, 워싱턴의 3군사관학교 동문들이 뉴욕에서 연말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 알리미

- ♣ 총동창회 이사회
- ♣ 평생회비 적립현황
- ♣ 제14차년도 찬조금 현황
- ♣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 ♣ 전역자 현황
- ♣ 알립니다!(결혼, 부음)
- ♣ 주소변경
- ♣ 기수별 동기생 임원
- ♣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 ♣ 편집후기/기고안내

총동창회 이사회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 지난 2006년 7월 26일(수) 18:00 공군회관에서 제14차년도 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제1기에서 제5기까지의 원로 이사와 제6기에서 제34기까지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보고에 이어 제14차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자금 조성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 회무보고 내용

- 공사총동창회 회원 현황
- 평생회비 적립기금 현황

◇ 14차년도 주요 사업계획 - 연속사업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도 표창 ● 친선 바둑대회 ● 성무지 발행 ● 졸업/임관 50주년 및 홈커밍데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정/표창 ● 부대방문 ● 조문활동 |
|--------------------------------------------------------------------------------------------------------------------------------|-----------------------------------------------------------------------------------------------------|

◇ 14차년도 주요 사업계획 - 신규/역점 사업

- 신규 - 예산사업 - 선·후배 기수간의 모임기회 확대
 비 예산사업 - 후배기수 회의 참석독려
 - 동창회 사무실 상시 개방
- 역점 - 공사 '교육진흥재단' 활동의 홍보후원
 동창회 활동 활성화: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일상화
 회칙 및 운영규정의 검토 보완
 자유스러운 참여 분위기 조성

총동창회 이사회

◇ 소요 예산 : 총 66,100,000원

- 사업비 : 1,950만원
- 회의 및 운영경비 : 1,910만원
- 인건비 및 예비비 등 : 2,750만원

◇ 운영기금 조성계획

(단위 : 만원)

	내 용	수 입	비 고
1	기별 분담금	1,580	6~13기 : 40만원 14~34기 : 60만원
2	찬조금 - 특별 찬조 - 운영기수 찬조	330 4,000	총장 외 2명 14기 사관
3	광고비	500	
4	이월 운영금	200	13차년도 운영기수
계		6,610	

◇ 회비 관리규정 개정

- 2007. 1. 1.부터 평생회비는 회비 관리 규정 개정에 의거 2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니 지속 협조 바랍니다.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2007. 1. 1.부터 적용)입니다.
-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15, 18, 19

* 1기에서 15기까지, 18기, 19기는 완납하였음. *

평생회비 적립현황

◇ 2006. 7. 1. 이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6. 07. 01. ~ 2006. 12. 15.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16	56	45	11	강명식, 강무송, 김용석					
17	60	49	11						
20	93	57	36	김택기, 권동섭, 서상오, 이용주, 이준근					
21	95	66	29	김상욱, 김오민, 김용혁, 나채성, 박인규, 오진교, 유근국, 이광희, 이근재, 이상운, 이상철, 이호일, 정기식, 정성구, 정한철, 황호상					
22	103	46	57	강원호, 김명대, 김정근, 심강운, 이강현, 이원필, 임영옥, 정 양					
23	107	40	67	강치행, 박정배, 이정환, 최주식					
24	127	72	55	권태환, 박동문, 박상목, 박종현, 신승덕, 유상양, 유영홍, 이만휘, 이운상, 이장세, 이정진, 전복진, 조현규, 최규철, 최삼조, 황원동					
25	124	41	83	김병용, 박용규, 서상철, 양해구, 이석호, 인선석					
26	120	34	86	김정식, 문길주, 박성남, 오범석, 임시영, 전영구, 조정호, 조희연, 채재승					
27	124	24	100	구본래, 권영철, 신현기, 이수철					
28	121	37	84	김영철, 김인동, 김학수, 김형철, 박민환, 선기훈, 안재모, 유태일, 윤범여, 이정석, 이명환, 이성길, 이용표, 이재원, 이태윤, 조현재, 최승관, 최차규, 황위준					
29	141	39	102	강명홍, 표상욱					
30	154	38	116	강지순, 구 정, 권규홍, 김성용, 김세명,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신원희, 염동선, 이종돈, 장현동, 정경두, 정 수, 조보근, 조영봉, 최성규					
31	166	27	139	김시완, 마권용, 신기균, 유병길, 유보형, 이선호, 이수완, 장동현, 정석환, 정재형, 조승균, 조현기, 천상필, 최승준					
32	168	9	159	김성환, 박호영, 신익현, 윤석준					
33	173	17	156	박삼남, 박찬혁, 조성호					
34	165	12	153	강우석					
35	252	10	242	김부국, 이영배, 임채현					
36	255	8	247	김보현					
37	251	5	246	진광호, 이동훈					
38	233	5	228	김정수					
39	221	10	211	강진구, 권성범, 김용희, 김정훈, 이재욱, 임정구, 임중택, 최한규, 홍봉선					
40	241	9	232	강정현, 김재형, 김진일,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현희, 황희철					
41	239	3	235	임장석					
42	274	3	271	박세훈, 이범기					
43	270	3	267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44	216	4	212		45	211	2	209	하동열
46	227	1	226		47	201	0	201	
48	192	103	89		49	199	1	198	
50	193	0	193		51	202	0	202	
52	203	0	203		53	202	0	202	
54	193	0	193						
합	현재인원 : 7,580			납부인원 : 1,812			미납인원 : 5,768		

※ 14차년도 납부자 : 162명(2006. 12. 15. 기준)

평생회비 적립현황

◇ 2006. 6. 30.까지 납부자 현황

기수	납부자 명단
16	강안석, 강철수, 권명남, 김문기, 김성구, 김신희, 김의림, 김정갑, 김정옥, 김종환, 김현석, 김희동, 박성국, 박경용, 박영기, 박영훈, 배정영, 배충정, 백동기, 서효창, 신무광, 양길수, 오창모, 이상렬, 이선기, 이성우, 이수웅, 이은양, 이재기, 임정빈, 장정동, 장진수, 전광남, 정준식, 정해창, 조창조, 주창성, 지양일, 최동빈, 최동철, 최명상, 최양웅
1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용수, 김익창,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박윤교, 배중수, 상석곤, 서정윤, 손종호, 송대성, 신영실, 안광수, 어수연, 원철희, 유성열, 유정웅,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규희, 이문호, 이성율, 이용대, 이한호, 이철희, 임흥규, 장상용, 장호근, 전영배, 정태섭, 조규식, 차상호, 차선규, 차옥환, 최복현, 최석권, 한형택, 황장번
20	강만수, 강유춘, 김광영, 김규식, 김덕선, 김동래, 김삼교, 김성두, 김성일, 김영한, 김오비, 김우식, 김원춘, 김점태, 김정기, 문태인, 박동형, 박영, 백재현, 서상용, 서일수, 손준영, 송기천, 안병걸, 안상복, 유선종, 이병기, 이사룡, 이정학, 이석규, 이영원, 이영희, 이정호, 이재명, 이재원, 이종록, 이철주, 이치훈, 임근배, 장성문, 전호환, 정제택, 정철호, 조태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갑선, 홍상열
21	강남식, 강한중, 권근, 금기연, 금영수, 김광진, 김동기,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창욱, 김태욱A, 김태욱B, 김형진, 마순복, 명철원, 민병홍, 박건웅, 박경석, 박용복, 박희영, 변희룡, 배민섭, 배창식, 박천수, 성광준, 성봉환, 송동근, 연양희, 오제상, 유관욱, 유경현,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이종원, 이찬, 이화민, 임병만, 장성태, 장원초, 정용운, 조오현, 정호영, 하태용, 한홍섭, 홍종백, 황사홍, 황성창
22	강수준, 김병근, 김은기, 김인식, 김장호, 김재승, 김철구, 남궁혁, 남백우, 노장갑, 노창래, 류양수,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중열, 송인선, 오봉진,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환, 이광희,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임인빈, 장영현, 장현섭, 정갑순, 조영기, 최병운, 최승열, 최호준, 한영렬, 한용섭, 한중호, 홍재근
23	강희창, 구분담, 권오봉, 김경순, 김상문,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창환, 김형선, 박성순, 박종철, 박종화, 이계훈, 이동호, 이상진, 이수현, 이영덕, 이은수, 윤남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장창연,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정희균, 정희진, 조원건, 최상익, 최진수, 하창호, 한규섭, 함경만, 허일영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공윤석, 김광목, 김동진, 김득환, 김명익, 김상철,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A, 백영남B, 백윤호, 설중일, 신진섭, 송광호, 송기백, 안인규, 안창수, 안빈용, 염경식, 오연근, 이기용, 이봉운, 이월중, 이영재, 이영중, 이용상, 이재강, 이철순, 전남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주신희, 주중수,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중용, 최홍진, 하원훈,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권용국, 김국희, 김상진, 김진태, 김중흠, 김정렬,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류홍규, 박우성, 박춘한, 성신모, 손명환, 심재명,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성우, 이성재, 이승구, 이정표,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허왕규, 홍건표

평생회비 적립현황

기수	납부자 명단
26	강충순, 강희규, 기예호, 김세창, 김태영, 박성보, 박인규, 박중석, 배충영, 변중돈, 성삼식, 송길수, 심상철, 오희석, 이봉준, 이상길A, 이상길B,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전성관, 최병학, 최지수, 허중순
27	고덕규, 고용하,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경규, 박준형, 박창권, 박한진, 손태용, 신혜철, 이무섭, 이영만, 이제훈, 임판식, 최동환, 한병국, 한정렬, 홍성은
28	김남수, 김도호, 김명호, 김주언, 김항수, 박경진, 방명환, 서근영, 신영덕, 윤 우, 음종민, 조민식, 이태용, 정재부, 최상일, 하태직, 한창환, 황신섭
29	김경호, 김석중, 김성전,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희영, 김용희,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조병호, 최상철, 최성욱, 최승철, 한봉규, 한봉완,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30	강구영, 강성호, 고영문, 김무겸, 김원규, 김용환, 김종선, 김진완, 서희석, 손한섭, 심인태, 양승주, 이경달, 이연수, 이지영, 장덕진, 정규호, 차주섭, 채덕상, 채종목, 한상덕
31	강경한, 김동철, 김철승, 김홍준, 박항윤, 방은상, 신재현, 임봉수, 장영익, 조환기, 최병섭, 허기주, 현용희
32	김영수, 김현관, 심부수, 전종일, 최원기
33	박수철, 박진용, 심동섭, 유준중,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홍, 장경식B, 장병노, 정영철, 정희주, 한상균
34	감수봉, 김학준,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35	강규식, 김중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운용섭, 최병오
36	김성균, 김응문,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이준모, 임이철
37	이준혁, 이재섭, 최기명
38	신보현, 윤상보, 이정호, 장창열
39	최정모
40	박기태
41	김민호, 송창희
42	이준재
43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정희두
46	장순천
47	

평생회비 적립현황

기수	납부자 명단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정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인,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50	
51	
52	
53	
54	



웃으면 좋아요

1. 누구나 웃으며 읽는 글은? ---싱글 벙글
2.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
3. '씨름선수가 죽 늘어서 있다.' 를 세 글자로 줄이면? ---장사진
4.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멕시코
5.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를 4자로 줄이면? ---개인 지도
6. 발이 두 개 달린 소는? ---이발소
7.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
8. 내 취미는 독서, 그럼 내 특기는 뭐게? ---취미생활 안하기

제14차년도 찬조금 현황

◎ 기별 분담금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신한은행 372-04-573214
예금주 : 김길상(해당기수 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 기별 분담금이란 총동창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기수에게 총동창회 운영경비를 운영 기수 인접 기생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는 40만원,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다.
- 납부 시기는 가능하면 운영기수가 총동창회를 담당하는 시기인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기생별 운영책임기간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 14차년도 기별 분담금 납부현황(임원기수 : 6~34기)

(2006. 12. 31. 현재)

기 수	금 액	납 부 현 황
6~13기	40만원	완납 : 6~13기
14~34기	60만원	완납 : 14~22, 24, 25, 28~32기 미납 : 23, 26, 27, 33, 34기

◎ 특별 찬조금 : 419만 6천원

직 책	금 액
공군참모총장 : 김성일	300만원
전 총동창회장 : 이기현	20만원
전 총동창회장 : 김홍래	10만원
3기 사관 : 유재호	89만 6천원

◎ 운영기수 찬조금 : 4,000만원(14기 전원이 찬조하였음)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오늘날 교육환경은 지식/정보의 홍수와 함께 다양한 교육매체가 등장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내외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진 확보, 교수 교육 및 연구활동 진작, 우수한 학생유치, 학생들의 학업성취 고취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제공하면서 빠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대학들은 대학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는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기관으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국가예산에만 의존해서는 국내외의 우수 대학들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이 어려운 교육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 군 사관학교 재단현황〉

	육 사	해 사	공 사
재단설립일	1996년 3월 22일	1995년 6월 8일	1996년 6월 10일
총 기부금	117억원	34억원	36억원
'06년 예산	4억 8천7백만원	1억 8천만원	2억 3천4백만원
생도 1인당 예산	56만원	31만원	35만원
생도 1인당 기금액	1,340만원	591만원	544만원

본교와 같은 해에 출범한 육군사관학교 재단은 이미 117억 여 원을 모금하였고, 해군사관학교는 34억 여 원을 모금하여 본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기금이 제일 풍부한 육사의 경우 재단기금만으로 재교기간 중 생도 1인당 3회 정도 국제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 국제학술활동비, 화랑문예전, 국제심포지엄 행사지원을 포함한 목적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수생도 유치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1996년 3억 여 원의 설립재산으로 시작한 본교 재단은 10년이 지난 오늘 약 37억 원의 기본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심시일반의 마음으로 참여해 준 1,800여 명의 동문과 기업 및 사회단체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지정기부제의 도입으로 기부자가 재단 설립취지에 맞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재단 기부금 출연 현황〉

구 분	출 연 자	출연금 비율
개 인	이종학(공사 3기) 외 1,481명 (기생회 포함)	30%
	비동문	352명
단 체	삼성테크윈 외 45개 단체	64%
고액출연자	삼성테크윈(주)(10억원), 대우그룹(5억원), (주)삼양화학공업(2억 8백만원), 이종학 교수(2억 6천2백만원), 최동환 C.T.K 건설회장(1억원), (주)보잉(1억원)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의 이자수익으로 재단 목적사업은 운영된다. 재단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생도학술/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 생도국제교류사업, 교수/훈육요원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교육·도서·연구기자재 확충사업과 기타 기부자가 목적을 명시한 사업이다. 재단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도국제교류사업은 해외전사적지 견학, 외국사관학교 방문, 해외문화체험 등을 통해 생도들의 생도의식 고양과 자신감 함양, 국제적 시각을 갖추기 위한 입체적



〈해외전사적지(베트남) 방문지원〉



〈생도 대외경기 참가 지원〉

교육효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도대외경기 참가지원사업도 적은 지원규모에 비해 큰 성과를 올리는 사업이다. 올해 재단예산 지원으로 생도들이 참가한 대회와 성과를 보면, 전국대학생안보토론대회(최우수 1명, 장려 3명), 행·패러글라이딩대회(개인 1위 2명, 2, 3위 각 1명), 전국궁도대회(단체전 2, 3위, 개인 2위), 전국대학생 복싱대회(금 4, 은 2, 동 4) 등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어 공군사관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러한 각종 목적사업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군사관학교는 장차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정예 공군장교 양성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출 연 안 내】

일 반 출 연

- 무통장 입금
 - 국민은행 : 401-01-0662-701
 - 농협 : 303-01-345036
 - 우체국 : 300038-01-003768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 자동이체 신청 :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신청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 지로입금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용지를 우송하여 드리며, 각 은행에 비치된 용지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로번호 : 7629316
- 학교내방

특 별 출 연

- 하늘사랑 기부보험 가입
종신(생명)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시 가입자의 명의로 보험금(1,000만원)을 공사재단에 기부하는 방법
* 가입문의 : 1566-1202
* 홈페이지 : <http://www.skyloveinsu.com>
- 공군사랑 카드 가입
공군사랑 국민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재단발전기금으로 적립
- 혜택 : GS 칼텍스 리터당 70 원 할인, 백화점 및 할인점 할인, 가입비 면제
* 국민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재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교사랑 한마음 운동 참여
모교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동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 기생별로 10년간(매월) 일정액을 출연하는 운동
* 51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 락 처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우) 363-849
TEL : 043-290-5916, 5917 FAX : 043-298-0922
E-mail : kafafund@afa.ac.kr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6.6.30.	대령	윤병학	4008	26	'06.6.30.	대위	이응도	3007	43	
	대령	임락봉	1408R	26		'06.8.31.	대령	이윤상	1409F	24
	중령	조윤근	4608	26			소령	함윤석	7007	35
	대령	윤국진	3008	28			소령	김상곤	6707	41
	소령	송영신	7007	32			소령	정한상	1707	41
	소령	음승수	8107	34	대위		박용석	1407T	49	
	소령	김규수	1437F	37	'06.9.30.	대령	김광성	4609	23	
	소령	김영역	1437F	37		중령	김진호	7508	27	
	소령	윤인철	1437W	37		대령	권재상	1409O	23	
	소령	강현욱	1417F	38		대령	김동명	1409F	23	
	소령	고갑철	1417F	38	대령	김종현	8009	23		
	소령	김종구	1417C	38	대령	노인호	1409F	23		
	소령	김현태	1417F	38	대령	류연도	3009	23		
	소령	이석도	1407C	39	대령	우무진	1409F	23		
	소령	장준철	1407F	39	대령	이강무	1407O	23		
	소령	김은성	1407F	40	대령	이동철	4009	23		
	소령	김진연	1407F	40	대령	이정옥	4609	23		
	소령	노강철	1407F	40	대령	장수환	4009	23		
	소령	박상진	1407F	40	대령	정구돈	1409F	23		
	소령	백승국	1407F	40	대령	조영일	1409F	23		
	소령	오세국	1407C	40	대령	채홍원	1409F	23		
	소령	유현우	1407F	40	대령	최종창	8009	23		
	소령	이안영	1407F	40	대령	최주식	1409F	23		
	소령	정재훈	1707	40	중령	구창설	7508사	26		
	소령	고원	1407F	41	'06.12.31.	대령	권재호	3008	26	
	소령	김성민	1407F	41		대령	김석우	8109	26	
	소령	김용식	1407F	41		대령	김인호	3008	26	
	소령	김윤근	1407C	41		대령	박병길	4608	26	
	소령	김학현	1407F	41		대령	박희영	7008	26	
	소령	박성수	1407F	41		중령	이병인	4008	26	
	소령	박영	1407F	41		대령	이요섭	1408R	26	
	소령	손영복	1407F	41		대령	이창수	1708	26	
	소령	서민석	1407C	41		대령	주호태	1408O	26	
	소령	성재용	1407F	41		대령	채재승	7508	26	
	소령	이상웅	1407F	41		대령	최태선	5508	26	
	소령	이윤석	1407F	41		대령	하대용	8008	26	
	소령	장훈	1407F	41		대령	홍순만	1408F	26	
	소령	조대현	1407F	41	대령	황정선	7508사	26		
	소령	조정호	1407F	41	중령	노종호	1438W	29		
	소령	최도성	1407F	41	중령	임경수	1418F	33		
	소령	최원규	1407F	41	소령	두현재	1407R	41		

알립니다!(결혼, 부음)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006. 7.~12.)

월	기 수/성 명/관 계
7월	26기 이상길 장녀
8월	21기 임봉섭 장남
9월	20기 조태연 장남, 21기 명철원 차남, 21기 김형진 차남, 22기 심강운 장녀, 24기 김언용 장녀
10월	14기 김장수 장남, 14기 민신용 장남, 15기 양승묵 장남, 17기 이문호 장녀, 19기 윤영원 자녀, 19기 이성률 자녀, 20기 백재현 장녀
11월	13기 최길용 삼녀, 16기 박경용 자녀, 18기 구세환 장남, 18기 장영수 장남, 19기 박규복 자녀, 21기 강수근 장녀, 1기 김영배 차남, 21기 이경모 장남, 21기 황호상 차녀, 22기 강수준 장녀, 24기 박상묵 자녀
12월	18기 정용진 차녀, 22기 한종호 장녀, 24기 박종현 장녀

※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 축하를 하고 있으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8월 15일	24기	송기백	별세	8월 11일	11기	김달수	장모상
8월 18일	1기	김창수	별세	8월 28일	24기	김상철	부친상
8월 30일	20기	서상오	별세	9월 13일	22기	김인식	모친상
10월 5일	10기	문성근	별세	9월 22일	8기	백상희	모친상
11월 21일	9기	백봉중	별세	9월 29일	21기	김동기	장모상
	18기	조인행	별세	10월 8일	12기	홍종건	모친상
11월 30일	22기	조영기	별세	10월 15일	15기	이강섭	장모상
7월 15일	3기	정규혁	부인상	11월 18일	4기	이형복	부인상
7월 27일	14기	정병호	장인상	11월 21일	15기	최광섭	모친상
8월 7일	19기	윤정채	부친상				

※ 총동창회장 명의의 조기를 보내 전 회원의 조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본인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까지도 해당됩니다.
- 국내 어디에라도 당일에 전달 가능하니 총동창회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에는 사무총장 019-284-2673이나 직원에게 연락 요망).

주소변경

(2006년 7월~12월 현재)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손정서	경기 군포시 재궁동 849 무궁화주공(아) 104-301	435-762	031-393-5527
1	윤승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브라운스톤 101-410	410-817	031-811-6798
2	이지영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38 상현마을 동일 스위트(아) 265-404	449-518	031-896-1744
3	김태석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888 두산위브(아) 102-1406	472-756	019-294-4647
3	이형복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30 성원(아) 116-602	449-749	031-264-6466
4	임병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지구 백현마을 동일하이빌 2104-1302	446-753	031-693-4323
5	이병직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도주공(아) 60-101	137-812	599-3668
5	이원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 주공(아) 105-502	426-734	031-501-0319
5	이창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7 주공(아) 1207-703	139-762	936-8722
5	정순갑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300 명지(아) 101-1710	158-072	2066-2273
5	최현찬	충북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04	320-853	041-741-8756
7	강상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극동(아) 305-1202	448-989	031-265-1790
7	김남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4 한보라마을 휴먼하이 701-505	446-902	031-693-5791
11	이태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 교동마을 현대홈타운(아) 102-1902	446-562	031-306-6804
11	이관영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70번지	446-914	016-278-7404
11	김용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필그린 110-1102	446-912	031-287-2900
11	공종억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27-1201	440-709	031-254-2568
13	이승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82 대화마을 현대아이파크 901-1701	411-765	031-816-8066
16	박경용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 우성(아) 106-905	360-769	
17	권혁중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4-1 롯데캐슬해론(아) 102-402	137-828	592-8576
18	김종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44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텔 70 203-602	446-580	017-254-2037
18	김진철	경기 용인시 상현동 842 상현마을 수지센트럴 아이파크 108-1004	449-130	031-889-9628
18	이진학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9-5 CJ 나인빌리지 1차 501호	137-060	017-431-0048
19	백철인	충남 계룡시 금암동 신성2차 미소지움(아) 208-206	321-762	010-2605-1268
20	김택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07 경남(아) 1502-503	158-070	2647-1665
20	최병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아) 102-2903	150-010	011-229-2636
21	박경석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벽산첼시빌 511-1607	448-530	011-472-1978

주소변경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1	이화민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7 신동아(아) 502-1105	156-777	3477-9664
23	류연도	경기 용인시 죽전동 1118 현대홈타운3차 2단지 509-1103	448-544	011-9349-1332
23	주형률	대구 수성구 옥수동 130 태왕5차 월드하이츠 101-1303	706-920	053-794-9701
24	신승덕	부산 해운대구 좌2동 해운대 한라(아) 103-701	612-794	010-5073-5046
24	이윤상	서울 강남구 도곡2동 개포한신(아) 5-305	135-855	529-5107
25	강신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레미안(아) 302-1202	121-765	719-0320
25	박기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C-2506	463-858	031-782-0905
25	서상철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 217-902	140-728	793-2172
26	김정식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신사가지14단지(아) 1424-1006	158-774	6342-6330
26	전영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 6-806	150-762	780-8327
26	정성관	서울 강남구 대치1동 503 개포1차 우성(아) 7-1106	135-828	6248-5300
28	함선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103-2602	463-859	031-785-2538
29	한봉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2-2 태영(아) 101-1302	157-839	668-2659
29	홍승조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20-1 정전벨라지움 710호	100-195	2279-8083
36	박홍식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송보파안빌 203-1204	664-711	055-851-1906
37	이동훈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후곡마을 1604-102	411-310	031-923-9268
40	서철모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7-7	137-883	596-2777



웃으면 좋아요

1. 묵수도 고칠 수 없는 집? ---고집
2. 물고기 중 가장 학벌이 높은 물고기? ---고등어
3. 가슴의 무게는? ---4근(두근 두근)
4. 굵은 사람이 많은 나라는? ---헝가리
5. 폭력배가 많은 나라는? ---칠레
6. 다 자랐는 데도 계속 자라라고 하는 것은? ---자라
7. 바닷가에서 해도 되는 욕은? ---해수욕
8.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르는 산? ---태산
9.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거짓말

기수별 동기생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1기	회장	최규순	533-2485 011-253-3154	14기	회장	이용석	031-716-7702 011-9052-1714
	총무				총무	석영우	592-3509 011-888-3509
2기	회장	이원의	2644-9139 016-368-9130	15기	회장	명정수	031-385-3960 011-9089-2008
	총무	성창현	031-712-1078 016-609-1078		총무	김주식	032-273-2224 011-9827-2224
3기	회장	정규혁	031-283-0742 011-232-1526	16기	회장	최명상	795-4230 011-253-4230
	총무	김필원	713-2139 (사)2266-1852		총무	이재기	2256-5868 011-441-8108
4기	회장	박병순	2298-0017 011-396-8182	17기	회장	윤병인	031-2669-1500 011-754-5455
	총무	조시중	031-233-6750 010-2224-6750		총무	안광수	031-3477-7337 011-253-6278
5기	회장	정재식	031-262-6793 019-318-6793	18기	회장	천기광	3461-8843 017-428-5045
	총무	손정희	855-3231 010-3164-8531		총무	구세환	2065-7401 017-516-0600
6기	회장	이의재	031-916-3852 017-741-3852	19기	회장	김명립	
	총무	김원근	584-4827 016-268-4827		총무	윤정채	031-978-5864 017-676-2591
7기	회장	김정동	031-702-3109 010-2775-3109	20기	회장	김성일	920-6000
	총무	신덕식	031-903-3629 010-2209-3629		총무	서일수	043-294-5325 010-5075-0897
8기	회장	윤석문	592-0212 016-747-0220	21기	회장	이 찬	921-6000 010-5073-5220
	총무	백상희	521-6398 011-725-5171		총무	정용운	3661-9532 019-284-9532
9기	회장	한광희	502-2398 011-330-2398	22기	회장	민형기	010-5071-5410
	총무	이강홍	031-458-2665 011-758-8811		총무	정갑순	6347-9635 011-303-9677
10기	회장	서진규	032-326-1243 016-695-2135	23기	회장	이계훈	920-3000 017-284-5736
	총무	송창수	031-264-4575 011-229-6901		총무	류연도	011-9349-1332
11기	회장	신기순	2662-0944 018-272-1301	24기	회장	이만휘	920-5100
	총무	박용이	031-264-3152 011-211-8121		총무	최규철	920-4600 010-5073-5077
12기	회장	전대우	031-915-5067 010-2352-5008	25기	회장	윤용현	921-6463 017-5073-5062
	총무	강영식	6268-8877		총무	이정표	920-3215 010-5079-0801
13기	회장	이정호	780-7216 011-9374-7217	26기	회장	오범석	920-4100
	총무	김진석	3473-5219 011-9974-5219		총무	박희수	920-4500 010-5073-5982

기수별 동기생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27기	회장	권오성	920-6200	41기	회장	이형현	935-1250
	총무	홍진기	019-267-3514		총무	이광조	
28기	회장	최치규	920-2100	42기	회장	이종서	041-932-0572 010-5072-3318
	총무	박철규	920-4300 010-5073-6980		총무	이동현	900-5726 010-5071-0446
29기	회장	강명홍	010-5073-6267	43기	회장	오동식	010-5081-3798
	총무	김만수	920-3120 010-5073-6961		총무	이종원	
30기	회장	강구영	939-2200	44기	회장	고준기	921-5413
	총무	구정	920-5310		총무		
31기	회장	유병길		45기	회장	윤혁중	930-7200
	총무	방은상	920-1210 010-5073-8007		총무	김대환	
32기	회장	원인철	920-6633	46기	회장	김용진	923-6701 010-5075-8473
	총무	전종일	920-5320 010-5077-7546		총무	서정민	921-5444 010-5073-7005
33기	회장	최근영	920-2121	47기	회장	이영진	921-6311
	총무	김지원	920-1610		총무	문성훈	936-6366
34기	회장	박원서		48기	회장	고종진	937-4830
	총무	김학준	932-3320 010-5077-3434		총무	원기탁	921-6230
35기	회장	윤재룡	920-4153	49기	회장	최창환	936-5048 010-5084-0374
	총무	이봉우	920-7651		총무		
36기	회장	박찬식		50기	회장	송준협	930-7532 010-5079-1724
	총무	김효준	920-7123		총무	전수진	930-7535 010-5085-5299
37기	회장	김선열	010-5082-3710	51기	회장	유진규	930-5253 011-9152-0451
	총무	강동우	920-2215 010-5072-1325		총무	김성경	010-5081-6461
38기	회장	심재환	010-5076-5785	52기	회장	유영광	010-5082-6668
	총무	김봉주	930-7505		총무	이동계	010-5083-0452
39기	회장	황보근		53기	회장	장지용	010-4503-4640
	총무	임중택	920-5852 010-5075-2290		총무	윤종성	920-3593 016-9373-0402
40기	회장	이현희	920-4632	54기	회장	조원기	017-541-6266
	총무	김중기	920-5323		총무	권선영	011-9481-5689

※ 임원 변동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 ◆ 주소 : (우) 156-600 서울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
공군복지단(과거 항공의료원) 제대군인지원실 4층 공사총동창회
- ◆ 사무실 이전 예정 일자 : 2007년 2월 중
- ◆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총동창회 홈페이지(<http://www.kafaaa.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후기

처음엔 원고 청탁도 어려웠는데 원고 접수를 시작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투고하여 주셨고 관심과 선호에 따라 내용과 표현도 모두가 달랐습니다.

지면관계로 일부는 차기로 미루었으며 분량과 구독의 흐름을 맞춘다는 구실하에 약간 가필하였으나 원문의 줄거리는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루하지 않다, 재미있었다 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전부 의미 있듯, 이야기의 소재 가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읽음에 무익하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바쁜신 중에도 글을 보내주신 회원님과 편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임원기수 임원과 특히 수고한 문광 편집위원과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교재창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인>

기고안내

공사 총동창회 회지인 '성무' 지는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걸쳐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생활 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5호 성무지 원고는 2007. 4. 3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07. 1. 1.

발행인 : 이억수

편집인 : 김길상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8-1(우 156-808)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질병이나 사고는
영화 속 일만은 아닙니다!

생활보험은 생명에서 생활까지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깨지고, 다치고 병들고...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은
수천가지가 넘습니다. 당신과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고,
이제 삼성화재 올라이프로 대비하세요.
삼성화재 RC가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딱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

올라이프란? 생명은 물론, 생활 속 위험까지 빈틈없이 지켜주는 다양한 삼성화재 보험상품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KAI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대표기업, KAI-

항공우주의 새로운 미래, KAI가 열어갑니다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과
국내 최초로 완제 항공기 수출시대 개막을 이끈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개발업체, KAI-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Global KAI로 우뚝 서겠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미래 항공우주 기술!
그 중심에 자랑스런 우리의 KAI가 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http://www.koreaero.com>